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경숙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전략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고 우 리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전략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고 우 리

인 준 서

고우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면밀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즉, 영아와 어머니가 어떠한 상호작용 전략들을 사용하여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을 읽어주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의 이해를 돕고 그림책을 매개로 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 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가?

둘째,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어머니 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개월과 24개월 된 남아 2명과 그들의 어머니 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2년 10월 중순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주 1회씩, 1회에 2시간(총 24회)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영아와 어머니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참여 관찰하고 기록하였으며, 어머니와의 면담, 비디오 촬영 및 녹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을 위해 비디오 촬영과 녹음내용을 토대로 전사한 내용과 현장 관찰 기록을 함께 보며 전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병행하며 생기는 의문점이나 사실 확인 및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어머니와 면담을 갖거나 문헌을 검토하는 등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가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으로는 말없이 바라보기를 통해 관심 표현하기, 책장 넘기기로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표현하기, 어머니의 행동 모방하기, 미소와 웃음으로 지속시키기, 밀치거나 책 덮기로 거부 의사 표현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영아는 어머니의 얼굴이나 그림책을 말없이 바라보는 행동으로 그림책 읽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영아 스스로 그림책을 넘기며 다음 내용이 궁금한지, 다 읽었는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그림책을 읽어 줄 때 어머니가 내는 소리나 행동을 모방하기도 했고, 미소와 웃음으로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을 강화시키기도 했으며, 그림책이 보기 싫을 때는 그림책을 밀치거나 책을 덮는 등과 같은 그림책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둘째, 어머니가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영아에게 사용하는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시키기, 그림의 특성을 살리는 음성언어 사용하기, 영아의 경험과 책 내용 연결시키기, 영아 의사 확인하기 및 참여시키기, 설명을 통해 정보 제공하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및 신체 움직임을 이용한 관심 끌기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영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놀랍과 관련된 감탄사를 사용하는 등의 언어적 자극을 통해 주의환기를 시켜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의 특성을 살리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영아가 청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림책에 그려진 동물이나 사물들의 특성에 맞는 음성언어를 흉내 내며 영아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림책의 내용과 영아의 이전 경험과의 연결을 통해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였고, 그림책을 계속 읽을 것인지에 대한 영아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이나 그림책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영아를 그림책

읽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그림책을 읽을 때 영아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에 그려진 사물이나 동물 등을 가리키며 대상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림책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는 상호작용을 사용하기도 했고, 영아가 그림책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는 손가락으로 그림책을 가리키거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물의 모습을 직접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등의 움직임을 통해 영아의 관심을 끌어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지속하기도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영아와 그림책	6
2.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13
3. 선행연구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참여자	21
2. 연구절차	23
3. 자료수집	24
4. 자료 분석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8
1.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 상호작용 전략	28
1) 말없이 바라보기를 통해 관심 표현하기	28
2) 책장 넘기기로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표현하기	31
3) 어머니의 행동 모방하기	35
4) 미소와 웃음으로 지속시키기	40

5) 밀치거나 책 덮기로 거부 의사 표현하기 -----	44
2.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어머니 상호작용 전략 -----	51
1)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시키기 -----	51
2) 그림의 특성을 살리는 음성언어 사용하기 -----	57
3) 영아의 경험과 책의 내용 연결시키기 -----	61
4) 영아 의사 확인하기 및 참여시키기 -----	64
5) 설명을 통해 정보제공하기 -----	69
6)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및 신체 움직임을 이용하여 관심 끌기 -----	73
V. 논의 및 결론 -----	78
1. 논의 및 결론 -----	78
2. 제한점 및 제언 -----	87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전 생애 발달에 있어 영아기는 가장 급격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며 인간관계의 기본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아들에게 제공되는 자극과 경험은 영아가 성장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은 영아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문학을 접하게 되는 장소이며(정명숙, 2012),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영아에게 그림책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경하, 임영심, 한남주, 2012). 특히 영아용 그림책은 영아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과 감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아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효과적인 매체로써 영아의 발달과 학습에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한다(강화자, 2008).

영아들은 성인의 도움 없이 책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책과 영아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김명순, 이가현, 2009). 어머니는 그림책에 나와 있는 글자를 읽거나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영아들에게 그림책과 관련된 정보를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영아가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경하, 임영심, 한남주, 2012).

영아와 함께 하는 그림책 읽기 활동은 많은 가정에서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활동이다. 어머니가 영

아의 발달에 맞는 그림책을 선택하여 읽어 준다는 것은 그림책의 언어에 생명을 불어넣고 사랑을 전하는 일이므로, 어머니와 영아는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친밀감이 커지고 정서적 유대감이 돈독해진다(육길나, 2008).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영아는 귀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그림책의 그림을 보며, 손으로는 그림책의 촉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책을 살피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아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이해하고 자신감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 이로써 안전, 소속, 성취, 사랑과 애정, 이해, 심미적인 욕구 등이 충족되어 영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은주, 현은자, 2002).

영아들은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그림을 볼 수 있고 그로부터 뭔가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이야말로 영아들의 교육에 더할 수 없이 좋은 교재이다(강화자, 2008). 영아기에 그림책을 보는 것은 단순히 글자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 숨은 감성을 끌어내고 앞으로의 독서생활을 위한 긍정적 경험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다. 즉, 그림책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영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만나며, 그림책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어 독서에 대한 취향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영아들이 그림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책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이화진, 2011).

그림책을 읽는 영아들은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많이 발달하고 읽기를 되풀이 할수록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며(Gordon, 1986), 그림책을 통한 심미적 문학체험은 청자로서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내어 말하는 화자로서 참여하게 하며 구어와 문어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게 한다(Russell, 1991; 강화자, 2008, 재인용). 또한

그림책을 통한 문학 경험은 모국어에 대한 언어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고 표음문자인 한국어의 경우 구어와 문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발전적 문해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조정숙, 김은심, 2002).

성정아(1995)는 그림책은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고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과 논리적 사고 형성을 도와주고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며 성역할이나 사회규범 그리고 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등을 알아가게 한다고 하였다.

조정연(2008)은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주는 것을 규칙적으로 경험한 유아들은 책을 좋아하게 되고 읽기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림책을 통해 얻은 풍부한 지식의 형성은 어휘력 신장은 물론, 표현력이 향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가정에서의 책 읽어주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아기에 경험하는 그림책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영국에서는 ‘북 스타트’ 운동을 통해 부모와 함께하는 영아의 독서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책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친근한 매체로서 영아들은 글자를 알지 못하지만 책을 펼치고, 그림을 보고, 읽어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책과 친해질 수 있다. 영아기 때부터의 독서경험은 영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고능력을 길러주고, 침착성과 호기심을 길러주는 동시에 독서 경험을 하지 않은 영아들 보다 학업 이해력과 성취력이 더 뛰어나다고 하였다(<http://www.bookstart.org> 인출).

이처럼 그림책은 영아와 어머니 사이의 신체적 · 정서적 교감을 나누게 해주는 매개체로서(변윤희, 2005), 영아의 언어능력 증진 및 여러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오진희, 2000). 그림책 읽기 활동은 영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오는 갈등의 해소, 기본적인 요구의 충족, 상상력과 상상력, 심미적 감상력 등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준다(정명숙, 2012).

그러므로 어머니는 그림책 읽기의 과정이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아의 흥미를 끌고 즐겁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양질의 그림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변윤희, 2005).

최근에는 영아가 교육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영아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이 등장하고 있다. 외국의 번역 그림책부터 우리나라 순수 창작 그림책까지, pop-up book, flap-book, 촉감 그림책 등 형식도 다양하고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소리 나는 그림책, 퍼즐 그림책 등 toy book 형태의 그림책들이 등장했다. 영아용 그림책은 영아들의 발달 특성에 부합되도록 만들고, 영아가 책을 손으로 직접 조작하거나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아의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영아기에 알맞은 형식이나 내용의 영아 그림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최은주, 현은자, 2002).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에 맞는 적절한 그림책을 제공하여 언어능력의 증진 및 여러 정서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와 자녀가 가정에서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영아기부터이며(Ninid & Bruner, 1978), 유아 가정에 비해 영아 가정에서 더 자주 그림책을 읽어주고, 유아보다 집중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에게 읽어주는 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결과(이영경, 2000)와 영아-어머니 간 놀이의 많은 부분이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포함한다는 연구결과(DeLoache & DeMendoza, 1987)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읽기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영아 간 그림책 읽기 활동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다양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영아의 그림책 읽기 활동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어머니-영아 간 그림책 읽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영아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 영아의 의사소통 전략(김명숙, 2008),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의사소통(김민희, 2005), 영아-

어머니의 그림책읽기 행동과 12~18개월 영아의 어휘력간의 관계(노정임, 2012), 그림책읽기 후속활동이 영아의 언어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이화진, 2011),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특성과 영아의 행동특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육길나, 2008),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의 차이(정명숙, 2012), 가정에서 영아의 문해 환경과 언어발달간의 관계(정혜진, 2011), 가정에서의 어머니-영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채유진, 2008)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양적으로 이루어져 그림책 읽기에서 발생하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최예린(2010)은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경험의 이해’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연구문제로 다루었지만 이 또한 책 읽기 활동 시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영아의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분석 기준에 맞추어 책읽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면밀하게 탐색하고자 한다. 즉, 영아와 어머니가 어떠한 상호작용 전략들을 사용하여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을 읽어주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과정의 이해를 돕고 그림책을 매개로 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 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가?

둘째,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어머니 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영아와 그림책

1) 영아의 발달 특성

영아의 초기 3년간 경험은 인간의 발달 단계 중 가장 많은 학습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영아는 급격한 신체성장과 함께 대·소근육 등의 운동능력이 발달하며 이는 지각, 인지, 언어 및 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전지혜, 2007). 이 시기에 성인이 제공하는 적절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환경은 영아 이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유미, 2008). 영아의 발달은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과정으로 개인에 따라 또는 개인 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서희, 2012).

영아는 키와 몸무게의 빠른 성장과 함께 생후 1년을 전후로 걷기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걷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동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영아들은 생후 첫 2년 동안 보다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박성연, 도현심, 2005). 생후 1년을 전후하여 영아의 눈과 손, 눈과 발 등 감각 기관과 운동 능력간의 협응 능력이 발달하게 되며 혼자 서기 시작하여 앉기도 자연스러워지고 걸을 수 있게 되며 도움을 받아서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영아의 신체적 발달을 통해 영아는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사물을 조작하는 기회도 다양해지며, 영아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나간다(김나영, 이경열, 정욱호, 홍계옥, 2005). 또한 소근육의 발달로 작은 사물을 잡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되며, 점차 오감각(시각, 청

각, 미각, 후각, 촉각)도 발달하여 주위의 사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강경미, 구광현, 백경숙, 2005; 김나영 외, 2005).

영아는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울음이나 웅얼이, 제스처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영아의 웅얼이나 제스처에 성인의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영아는 서서히 문법과 의사소통 규칙을 이해하게 된다. 영아기의 언어발달과정은 대부분 동일하나 언어를 획득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다(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종혜, 2005). 1세가 되면, 평균 10개의 어휘를 습득하고 발달이 빠른 영아는 두 낱말로 이루어진 어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 2005). 영아가 첫 단어를 말한 이후, 언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2세 전후로 300여 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조성연 외, 2005). 1세 반경까지의 영아는 주로 동작 언어를 사용하지만, 2세를 전후로 언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2세 말경에는 서툴지만 문법과 규칙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는 능력도 증가한다(김나영 외, 2005; 홍정아, 2010, 재인용).

영아기의 발달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달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인지 발달은 다른 발달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더욱 정교해진다. 영아는 적절한 인적, 물적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탐색하고, 사고하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 발달을 이루게 된다(강경미 외, 2005).

영아의 사회성 발달은 출생 직후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점차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달되고 만 1세 이후 혼자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점차 또래 영아와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발달시킨다(김희진, 김언아, 홍희난, 2004).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인적 환경과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영아는 다른 환경보다도 인적 환경과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접촉과 긍정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사회성을 기르게 된다(박유미, 2008).

1세 말경에는 성인이 가진 정서의 대부분이 형성된다. 기본적인 정서가 형성되고 수치심이나 자부심과 같은 자신을 인식하는 정서가 생기게 된다(조성연 외, 2005). 2세가 되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신은 누구이며, 타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타인과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김나영 외, 2005). 그리고 점차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발달하게 되면서 감정이입 능력도 생기게 된다(김희진 외, 2004). 2세말 경 영아는 얼굴 표정과 상황 단서를 사용하여 정서를 이해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영아가 주 양육자 및 영아의 주위 인적 환경들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신뢰감의 형성은 영아가 성장하는 동안 전반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세상에 대한 신뢰감과 인적 환경과의 애착 형성은 영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조복희, 2008).

이상과 같이 영아기는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민감한 시기로서(박유미, 2008) 영아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 영아 발달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의 제공은 영아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2) 영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인간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활동으로 그림책 읽기를 꼽을 수 있다.

그림책은 글 위주의 책이 아닌 그림이 주가 되어 글과 함께 어우러지는 책으로서(현은자, 2008), 글이 중심이 되고 삽화가 중간에 삽입된 책과는 구별된다(김세희, 2000). 성인에 의해 접하게 되는 그림책은 영아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문자언어이자 시각적 매체이다. 영아들은 그림책을 처음 접할 때 항상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같이 놀이를 하듯이 만지고 탐색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인에 의해 그림책을 접하게 되면 성인이 읽어주는 그림책의 내용을 듣기도 하고, 그림책의 그림을 바라보기도 하게 된다. 따라서 영아를 위한 그림책은 읽는 책이라기보다는 듣는 책이며 그림을 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오애순, 2004).

영아는 성인처럼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한 탐색을 통하여 점차 책의 의미를 이해하며(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 성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그림을 보고 언어의 이미지화에 의존하여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Hoff-Ginsberg, 1991; Senechal, LeFevre, Hudson & Lawson, 1996; Snow & Ninio, 1986; 남 규, 2009. 재인용). 영아를 위한 그림책은 영아의 정서와 상상력에 호소하여 큰 즐거움을 주고,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심미적 가치를 가지며,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길러주고, 영아의 어휘력, 이야기 감각, 모국어 이해, 창의적 표현력, 이야기로부터의 의미구성 전략 등에 대한 발달을 도모한다(이경우 외, 1997). 그러므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영아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최우선이 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김현희, 박상희, 1999).

Schickedanz(1999)는 그림책읽기 행동 발달 연구를 통하여 영아의 읽기 행동이 월령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즉, 2~4개월 영아는 그림에 시선을 주지만 책을 손으로 잡지는 않으며, 5~10개월경에는 책을 손에 잡고 입으로 가져가 빨거나 씹고, 책을 흔들고, 구기고, 휘두른다. 6~8개월 영아는 양손으로 하드보드지 책을 쥐고 책장을 여닫으며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8~12개월이면 성인에게 책을 읽어달라는 뜻으로 건네주고, 10분 또는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성인의 무릎이나 마루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툴지만 책장을 넘길 수 있으며 책 속의 그림을 지적하기도 한다. 12~14개월에는 친숙한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으며, 마치 읽기를 하는 것처럼 책을 보며 의미 없이 재잘거리는 책 웅알이가 나타난다. 11~15개월 영아는 책장을 잘 넘기고 거꾸로 놓인 책을 돌려놓거나 그림을 바로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14~15개월에는 책장을 한 손으로 여러 장 함께 잡아 빨리 넘길 수 있고, 17개월에는 책장을 넘긴 후 그 장의 부분적 내용이나 특정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16~20개월 영아는 그림이 실제로 위아래가 잘못되었을 때 그림을 바로 놓으려는 시도로 책을 돌려게 된다(노정임, 2012. 재인용).

따라서 영아의 월령별 발달 주기에 적합한 책을 선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경(2004)은 연령에 따른 적합한 그림책의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아의 발달에 맞는 책을 제시하였다. 즉, 생후 3개월 정도가 되면 단순하고 큰 그림이 들어 있거나 배경과 대조적인 디자인이 있는 그림책을 제시하며, 4~6개월 영아는 형짚이나 부드러운 비닐로 된 책으로 배경과 대조되는 단순하고 밝은 색깔의 그림이 매력적인 그림 유형으로 이때는 노래를 낭송하거나 동요를 들려주는 것이 좋다. 7~12개월에는 손가락 집기가 가능하므로 뽀뽀하고 두꺼운 종지로 된 책이 좋으며 책장을 넘길 때 다음 장이 튀어 올라오도록 되어 자연스럽게 넘겨지는 것이 좋다. 또한 물체를 탐색하거나 흥미로 구기고, 찢고, 깨물기 때문에 영아가 종이를 찢을 수 있도록 오래된 잡지 등을 제공한다. 12~18개월 영아는 친근한 주인공의 그림(동물, 좋아하는 텔레비전 주인공, 자신과 같은 어린아이, 잘 아는 역할을 하는 어른), 친근한 물체, 상황이 담긴 책을 좋아하며 노래가 담긴 책이나 반복적인 구절이 있는 책도 즐긴다. 18개월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주제를 다룬 책도 들려줄 수 있다. 19개월에서 30개월의 영아는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야기를 즐긴다. 매 책장마다 짧은 글들이 쓰여 있는, 단순하고 글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 그림으로 된 책이

영아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문장이 반복되고, 단어에 운율이 있고, 그림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책을 좋아하며, 사건을 순서 지을 수 있고, 친근한 순서적 상황에서 다음날 일을 예상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상 가능한 책에 매력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을 알고 그림책을 선정해야 한다.

Piaget에 의하면 영아기는 감각운동기에 속하는데 이 시기는 사물을 감각을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영아가 직접 조작하고, 감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책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아가 직접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장난감 책(toy book)' 같은 책은 이 시기 영아들에게 적합한 책이라 하겠다. 또한 다양한 촉감을 만져볼 수 있는 책, 누르면 소리가 나는 책, 잡아당기거나 펼치면 입체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pop-up book'이나, 끌어올리거나 들추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날개(flaps)가 있는 책들은 영아의 관심을 끌어 흥미를 느끼게 한다(최은주, 현은자, 2002).

유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현은자·김세희(1995)는 유아 그림책의 평가 준거를 외적 차원과 내적 차원으로 나누는데, 책의 외적인 면에서는 영아의 신체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넘기고 조작하기 쉬운 것, 믿을 만한 작가가 쓰고 그린 것, 재질이 비독성이어서 가지고 놀아도 안전하고 견고한 것 등을 들었으며, 책의 내적 부분에서는 밝은 색 대비가 있는 것, 초점이 되는 그림이 중앙에 위치하고 명확한 것, 그림은 디자인이 명확하고 배경이 어지럽지 않은 것, 그림책 내에서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균형을 갖춘 것, 간단한 이야기 속에 운율과 리듬이 있는 것, 영아가 모방할 수 있는 소리와 행동이 있는 것, 단순하고 정확한 개념을 줄 수 있는 것 등을 들었다.

Jalongo(1988)는 3살 이하의 영아를 위한 그림책의 문학적 평가 준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적절한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한다.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율성을 키워가는 이 시기에는 부모의 사랑과 자율성이

담겨진 내용이 바람직하다. 둘째, 언어가 효과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쓰여야 한다. 그림책 속의 글은 간결하고 음악적이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본문은 장면을 능숙하게 설정하여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직선적인 플롯이어야 한다. 즉, 명확하고 단순한 플롯이 이해하기에 좋다. 넷째, 빠른 결말이 나와야 하며 행복하게 끝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영아는 위안을 느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책을 읽고 싶어 하게 된다.

김현희(2009)는 좋은 그림책인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그림책은 이야기와 그림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야기에서는 주제, 플롯, 등장인물, 문체 등 아동문학적 요소를, 그림에서는 예술적 요소, 예술적 양식, 예술적 매개체 등 그림의 예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용의 교육성 또한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어야 하며, 번역된 그림책의 경우는 번역이 잘 되었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영아를 위한 그림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오애순, 2004).

영아가 그림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맛본 즐거운 경험은 평생 동안 영아의 독서에 대한 취향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영아기에 그림책을 보는 목적은 글자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숨은 감성을 끄집어내고 장차 읽게 될 책에 대해 책은 재미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영아기 때 얼마나 좋은 그림책을 접하느냐, 그래서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느냐에 의해 영아가 독서의 즐거움을 터득하게 되고, 독서력을 기를 수 있다(마쓰이 다다시, 2007).

김현희(1996)는 그림책은 첫째, 영아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둘째, 정서적인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영아의 정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셋째, 영아가 접하는 최초의 책으로서 영아에게 예술적 감흥을 경험하도록 하며, 넷째,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 유대감을 쌓을 수 있고, 다섯째, 언어를 체득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언어에 대해 익숙해지면서 언어

가 과생하는 문장의 의미와 이야기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그림책의 특성과 책에 대한 의미, 문헌들의 책 선정 준거들을 집약해 보면 그림책의 등장으로 영아는 책 읽기 의사소통 면에서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 성인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영아들을 위한 책은 영아의 생활과 친숙한 소재, 영아의 발달과 연령에 적합한 내용, 내용을 분명하게 반영하는 매력적인 그림, 운율이 있고 반복이 있으며 예측 가능한 글, 유능한 독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흥미 있는 구성과 영아의 감정과 정서를 반영해 주는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이지혜, 2010).

이처럼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기본적인 요구에 맞는 영아를 위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영아에게 들려주는 것은 영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아들에게 있어 그림책을 듣는 경험은 다양한 어휘를 들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재확인하는 기회이자, 문자언어를 포함한 언어발달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기회이다.

2.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1)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란 인간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그리고 현상까지 포함한 것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는 과정을 말한다(신일순, 2009).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이란 영아와 어머니 간에 부모-자녀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어 자연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상호 행동의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아와 어머니 간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아와 어머니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끊임없이 상호 자극, 강화, 반응하는 역동적 조절 과정으로,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용하는 대화체제의 모든 발성과 시각적 응시, 몸동작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Stern, Beebe, Barnette, 1997; 김미옥, 2007. 재인용).

정혜진(2011)은 영·유아의 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은 가장 중요하며,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하였다. 영아에게 있어 부모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창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부모는 영아에게 있어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잇는 대상이고, 부모와의 기본적인 신뢰감이 바탕이 되고 부모를 통해 얻는 다양한 환경의 경험은 영아기 발달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기까지 영향력이 있다(남도향, 2005). 특히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 환경체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겠다(이 영, 1992).

어머니 유아 간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은 1910년경 Freud의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이러한 영향력을 일방향적인 것, 즉 영향력은 어머니로부터 유아에게 전달되는 것이며(Kochanska, 1997), 유아의 발달은 양육자인 부모가 투입하는 원인에 의해 산출되어지는 결과물과 같이 인식되었다(Maccoby, 1992).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를 수동적이며 스스로는 변화 불가능하여 오직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변화되는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머니-자녀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또한 자녀가 어머니에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라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Maccoby, 1992).

유아는 태어날 때부터 상호작용을 위한 기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애 초기부터 이러한 양상은 관찰가능하다. 영아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주목 받기를 위하여 울음을 사용, 양육자의 즉각적 반응을 이끌어 내며, 여러 다른 반사행동들로 성인 양육자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Caulfield, 1995).

또한 출생 후 영아가 어머니를 자극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돌봄 행동을 유발하도록 함으로써 시작되며, 점차 발달하여 주기적이고도 규칙적인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결정하게 된다(Stevens & Mathews, 1983; 김미옥, 2007, 재인용).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주요 기능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해 어머니가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영아의 능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는 것에 있다(김태임, 1998).

이와 같이 영아와 양육자 간의 상호적 조절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영아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요구를 신호를 통하여 보내고 그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 한다(정인영, 2008). 그러므로 영아의 발달과 행동에 맞는 적절한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밥을 먹거나 놀이를 하면서, 잠을 자면서 등과 같이 영아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그림책’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 상호작용은 영아와 어머니에게 좀 더 질 좋은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가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영아는 어머니와 눈을 맞추거나 안기는 등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고, 영아가 보이는 다양한 행동에 어머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일어나는 상호작용 과정은 영아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어머니와의 올바른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게 하고, 또래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이양희, 김연수, 2001). 더욱이 어머니와의 그림책을 통한 좋은 경험은 영아에게 정서적 일치감과 안정감을 주어 영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다(신일순, 2009).

최예린(2010)은 1세 영아들의 눈에 비추어진 세상은 마냥 신기하고 새롭지만 영아들이 직접적으로 대상을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시각적 대상물이 있는 그림책은 영아들에게 간접적으로 대상을 경험하게 도와준다. 이처럼 그림책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영아들에게 어머니는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민경(2003)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는 통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진전된다고 하였다. 매일의 일상적인 일에서 어머니는 때때로 일방적인 명령과 협박을 하며, 영아 또한 일방적인 요구와 떼쓰기를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책 읽어주기는 영아의 질문에 대답하고 반응하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관계로 변화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영아와 어머니와의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대화는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어머니와 영아는 비일상적인 대화 즉 이야기의 이해를 위한 대화, 그림에 대한 느낌, 이야기 내용과 실생활과의 연결, 사전 경험과의 연결, 노래나 게임을 곁들인 다양한 책 읽기 방법으로 영아와 대화하기 위한 동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비형식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어머니는 영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영아는 어머니의 생각과 느낌, 가치에 관심을 갖고 수용하는 기회가 되며, 영아와 질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와 어머니간의 효과적인 책 읽기 상호작용 방법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는 질문하기, 영아의 대답에 대하여 더 깊은 질문하기, 영아가 말한 것을 반복하기, 영아의 부정확한 말이나 표현은 다시 해 볼 기회를 주기, 영아가 틀리게 한 말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준 뒤 바르게 설명하기, 영아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기, 훈육은 피하고 칭찬과 격려하기, 영아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활용하기, 재미있게 보내기, 짧게 읽어주기, 대답을 기다리기, 영아가 좋아하는 그림책 읽기, 단순히 그림책의 글을 그대로 읽지 않기, 개방형 질문하기, 예/아니오 대답의 질문 피하기, 페이지 내용에만 국한하지 않기, 영아가 말한 것을 확장하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Whitehurst, 1988; Neuman, 1996).

부모와 그림책을 읽는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한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어휘력과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ckinson & Tabors, 2002). 책읽기는 문자의 기능과 실제 방법의 사용, 읽기에 대한 태도, 문자 언어 자체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개념, 읽기를 위한 전략의 문해 발달 영역에 효과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영아가 책에 대해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며, 자기 수정과 예견하기 등의 읽기 전략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독자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다(Teale, 1984; 신일순, 2009, 재인용).

이와 같이 영아는 끊임없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어머니는 영아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림책은 영아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은 영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3. 선행연구

가정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영아-어머니의 그림책읽기 행동과 12~18개월 영아의 어휘력간의 관계(노정임, 2012),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특성과 영아의 행동특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육길나, 2008),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김금주, 2000),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의 차이(정명숙, 2012), 가정에서의 어머니-영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채유진, 2008),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경험의 이해(최예린, 2010)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노정임(2012)은 연구를 통해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고 영아의 어휘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으로는 그림책 내용의 묘사와 감탄사를 사용하고, 비언어적 행동으로는 포인팅과 눈 맞춤이나 손 뻗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영아의 언어적 행동은 발성, 명명과 응답으로 나타났고, 응시와 책장 넘기기, 손으로 지적하기의 비언어적 행동도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은 영아의 어휘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언어적 ·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육길나(2008)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특성과 영아의 행동특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의 영아와 어머니 간 그림책 읽기는 애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동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특성에 따라 영아의 행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영아의 행동 형성에 어머니의 행동특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놀이, 일상, 책 읽어주기 상황에서의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

의 언어 발달을 분석한 김금주(2000)는 영아의 언어 발달은 9~24개월 사이에 현격하게 발달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즉, 놀이 · 일상 · 책 읽어주기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영아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어머니 상호작용 시 영아들은 어머니의 반응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않고, 어머니의 반응을 유도하는 행동단서를 제공하는 능동적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정명숙(2012)은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 언어능력의 차이와 유아의 언어능력에 따른 기관별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의 기관별 차이점은 연구결과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상호작용 형태에 따른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언어이해력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채유진(1998)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영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해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과 책의 종류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영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는 영아로부터의 반응을 요구하는 언어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피드백도 증가하였으며 글 있는 책을 읽을 때 어머니는 '어디' 질문을 많이 하고, 영아는 비언어적 반응을 많이 보이며,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에 따른 어머니의 피드백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 없는 책을 읽을 때 어머니는 명명, 묘사, 추론 · 예측, '무엇' 질문, '기능/행동' 질문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글의 유무로 구별되는 책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는 책 읽기 활동 시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영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경험의 이해에 대한 최예린(2010)의 연구에서는 1세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가 갖는 경험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어머니의 주요 상호작용 방식

은 영아의 월령에 따라 변화되며 주의환기, 설명하기, 질문하기, 피드백과 같은 상호작용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환기는 주로 이름 부르기, 이야기 들려주기, 감탄사, ‘이것 봐봐’를 사용하고, 설명하기는 그림 보기에 초점을 둔 텍스트 중심, 명명과 묘사, 설명과 더불어 질문하기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잡한 상호작용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칭찬하기 피드백을 사용하고, 영아가 그림책을 보며 명명하기와 어머니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시작하면 언어적으로 모방, 수정, 설명과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며, 쓰다듬기와 같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에게 세심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만 2, 4세 유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연구(김재순, 2003), 읽기를 위한 가정환경요인과 책 읽어주기에 나타난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분석 연구(조미송, 1992), 그림책을 통한 어머니-자녀의 책읽기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활동(김미영, 2004), 보육시설-가정연계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영아의 읽기 흥미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모-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김현희, 2009) 등이 있다.

지금까지 영아와 어머니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은 영아와 어머니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긍정적 발달에 대한 효과를 알게 해 주었지만 대부분 양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어머니와 영아의 양자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1세 영아 2명과 그들의 어머니 2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아 모두 보육시설 경험이 없는 영아들이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5명의 영아 부모님들께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내용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가정 2곳을 방문하여 가정환경과 영아의 기본적인 발달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15개월과 24개월 된 남아 윤성이와 태민이로 참여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연구참여자	영 아	어머니	거주지
윤성	2011. 07월생 (남)	1985년생	경기도 OO 시 아파트 거주
태민	2011. 01월생 (남)	1985년생	경기도 OO 시 전원주택 거주

1) 윤성이의 가정환경

윤성이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윤성이로 구성되어 있다. 윤성이의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윤성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윤

성이의 양육에 전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 윤성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윤성이와 가정에 구비된 놀잇감과 동요 그림책을 보여주며 상호작용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윤성이의 어머니는 가정에서 윤성이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윤성이가 예의바른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으며, 평소 윤성이의 언어발달에 관심이 많아 윤성이를 위한 다양한 그림책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 윤성이는 낮가림이 심하고 겁이 많은 편으로 어머니는 낮가림을 하는 윤성이를 위해 얼마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영아놀이 강좌에 등록을 하여 윤성이와 함께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윤성이는 자신의 물건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있어 다른 사람이 장난감에 손을 대거나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타면 현재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타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내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놀던 것을 버리고 다가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윤성이는 낮가림도 심하고, 익숙하지 않은 물건이나 소리 나는 것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호기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2) 태민이의 가정환경

태민이네 가족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태민이 이렇게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조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2층에 거주하시고, 태민이네 가족은 1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태민이를 가진 후 휴직 중이셨던 어머니는 태민이가 돌을 지낸 후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4살 된 누나는 낮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태민이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2층에 사시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태민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기상시간과, 낮잠시간, 취침시간이 일정하여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태민이의 부모님은 주말이면 태민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모래놀이 시설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하였다. 잠자기 전 그림책 읽기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누나의 영향으로 태민이의 주변에도 그림책은 많이 있는 편이지만 태민이는 연구 시작 당시 그림책을 앉아서 읽는 것에 대해 익숙해 보이지 않았다. 가정에 구비된 많은 그림책은 태민이의 발달 정도에 맞는 그림책 보다는 누나가 읽는 그림책이 대부분이었다. 태민이는 성격이 매우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작은 일에도 잘 웃고, 항상 즐거움과 에너지가 넘쳐 앉아서 그림책을 읽는 것 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신체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2. 연구절차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영아들의 기본적인 발달 정도와 영아가 그림책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였다. 가정에 구비된 그림책을 활용하여 어머니가 영아에게 그림책을 제공하는 과정과 영아의 반응을 비디오로 녹화하며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그림책에 대한 영아의 행동특성을 살펴보며 연구 기간 동안 영아에게 어떤 그림책을 제공해야 할지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 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10월 중순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실시하였으며 만 1세 영아들과 어머니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과정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관찰 연구를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연구는 총 24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영아와 어머니 간에 이루어지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전체 과정은 비디오로 촬영한 후 전사하였다. 관찰 시간은 일주일에 1번씩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해 비디오 녹화와 동시에 현장

기록을 하며 진행되었다. 관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관찰 직후 면담을 통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화로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2년 10월 중순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참여관찰과 심층 면담, 비디오 촬영과 녹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관찰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의 삶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행위나 말, 상징뿐만 아니라 자신이 참여자로서 경험한 것이나, 느낀 것 그리고 현장 구성원과의 순간적인 대화 내용까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11, pp. 160).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의 참여관찰은 영아의 행동이나 표현 속에서 영아를 이해하고, 영아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 2012년 10월 중순부터 2013년 1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연구 참여 영아 당 주 1회, 1회에 2시간씩 (총 24회)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 초기의 참여관찰은 가정의 분위기 익히기 및 라포 형성하기, 영아와 어머니의 행동 특성과 언어 특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관찰의 상황을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의 참여관찰은 영아와 어머니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상호작용 하는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영아와 어머

니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 하였다. 연구자는 관찰 상황이 일어나는 공간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참여는 최소화 하는 ‘소극적 참여’를 통해 관찰에만 집중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자세하게 현장기록을 하였다. 전사는 관찰 당일 집으로 돌아와 현장 기록과 연구자의 관찰 기억을 토대로 즉시 실시하여 관찰일지를 완성해 나갔다. 또한 연구자는 영아의 행동과 언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어머니와 나눈 대화, 연구자의 느낌이나 의문점 등도 함께 기록하였다.

2) 심층면담

영아 어머니와의 면담은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비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자연 상태의 대화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면담으로, 관찰내용이나 어머니의 생각, 질문, 영아 행동에 대한 의문 등이 생길 때마다 실시하였다. 비형식적인 대화를 통해 연구자는 어머니와 라포 형성과 깊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형식적인 상황에서 얻기 어려운 영아와 어머니에 관한 심층적인 자료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면담 자료는 녹음기와 메모의 병행으로 기록하고, 녹음기 사용은 사전에 어머니의 양해를 구한 후 사용하였으며, 녹음 된 자료는 면담 시 기록했던 메모와 함께 비교하며 정리하였다.

3) 비디오 촬영 및 녹음

비디오 촬영은 기억을 담고 있는 거울로 비유되는 것으로 언어적 기술과 진술이 제공할 수 없는 현장에 대한 보다 근접하고 확실한 장면, 증거 그리

고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인간의 오감을 사용한 즉각적인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으므로 지나가 버린 자연 사건과 현상을 기록하여 연구자가 다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언어와 몸짓)을 원상태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필수적인 연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용숙 외,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표현력이 서투른 영아들의 다양한 반응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한 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아-어머니 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장면을 비디오 촬영 및 녹음을 하였다. 촬영한 비디오 자료는 사례 분석 시 내용과 해석을 재검토하는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참여관찰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이란 연구자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자가 발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수집한 면접 전사본이나 현장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다(임혜련, 2006).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직접관찰을 통한 비디오 촬영과 연구자의 현장관찰 기록, 어머니와의 면담내용이 있다. 질적 자료 분석의 제 1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는 과정(김영천, 2006; 김현지, 2008)으로,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아직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아의 행동, 표정, 시선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날 전사한 내용은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전사한 내용과 현장에서 연구자가 기록한 현장 관찰 기록을 함께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단어, 일차적 해석들은 전사한 내용 옆에 메모해 두어 전사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

구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였다. 또한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병행하며 생기는 의문점이나 사실 확인 및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어머니와의 면담을 갖거나 문헌을 검토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춰나갔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 상호작용 전략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만 영아의 상호작용은 성인에 비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몸짓이나 표정의 변화를 통한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 상호작용으로는 읽고 있는 그림책이나 읽어주는 어머니의 얼굴 말없이 바라보기를 통해 관심 표현하기, 책장 넘기기로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표현하기, 어머니의 행동 모방하기, 미소와 웃음으로 지속시키기, 밀치거나 책 덮기로 거부 의사 표현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1) 말없이 바라보기를 통해 관심 표현하기

영아들은 엄마와 함께 그림책을 보거나 읽을 때, 엄마가 읽어 주고 있는 그림책을 말없이 쳐다보거나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영아들은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하는 엄마의 신체적 움직임이나 읽어주는 그림책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말없이 그림책을 보거나 엄마를 바라보는 듯하였다.

<관찰 1-1>

윤성이가 책꽂이 앞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다.

엄마가 윤성이 옆에 앉으며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꺼낸다.

윤성 : (손가락을 빨며 그림책을 따라 시선을 움직인다.)

엄마 : (그림책의 표지를 보여주며) “따라갔어요.”

윤성 : (계속 손가락을 빨며 그림책을 바라본다.)

엄마 : (그림책을 한 장 넘기고 애벌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뭇잎에 쿵쿵 잠자던 애벌레가 깨어났어요.”

윤성 : (엄마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바라본다.)

(2012. 11. 03.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윤성이는 엄마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위해 엄마의 움직임에 유심히 쳐다보았다. 또한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 주는 시간 내내 그림책을 말없이 집중하여 바라보기도 하고, 그림책의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며 읽어주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관찰 1-2>

엄마가 그림책을 들고 자리에 앉는다.

윤성이가 엄마의 움직임을 바라본다.

엄마 : (윤성이에게 그림책의 겉표지를 보여주며)

“내 당근 봤니?”

윤성 : (그림책을 말없이 바라본다.)

엄마 : (윤성이가 볼 수 있도록 그림책을 넘기며)

“송이야 카레밥 먹자.”

“하지만 송이는 고개를 도리도리하며 저었어.”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난 카레밥 싫어.”

윤성 :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엄마를 바라본다.)

(2012. 12. 09. 참여관찰)

이러한 영아들의 행동은 엄마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또는 엄마

가 읽어줄 그림책의 다음 내용에 대한 궁금증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사례는 엄마가 어떤 책을 골라 읽어줄까를 궁금해 하고 다음에 나올 그림에 대한 궁금함을 말없이 바라보는 행동으로 표현한 태민이의 사례이다.

<관찰 1-3>

엄마 : (손가락으로 그림책을 가리키며) “태민아, 이거봐. 곰돌이 봐.”

태민 : (책꽂이 앞에 앉아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태민이가 볼 수 있도록 들고 그림책을 넘긴다.)

“자 이제 잘 시간이야.”

태민 :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바라보고 있다.)

(2012. 10. 27. 참여관찰)

태민이는 엄마가 그림책을 가리키며 “이거 봐.”라고 이야기 하자 책꽂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았다. 태민이가 고개를 돌리자 엄마는 태민이가 볼 수 있도록 그림책을 넘기며 그림책의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어 계속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태민이의 그림책 바라보기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 1-4>

엄마 : (태민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며) “태민아, 이거봐.”

태민 : “어?” (고개를 들고 그림책을 바라본다.)

엄마 : (팝업 책을 펼치며) “목이 긴 기린이다.”

태민 : “하하하하” (웃으며 그림책을 바라본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사자다. 어흥”

태민 : “하하하하” (점점 몸을 뒤로하면서 계속 그림책을 바라본다.)

(2012. 11. 17. 참여관찰)

언어적 표현이 서툰 영아들이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상호작용 전략은 ‘말없이 바라보기’인 것 같았다. 윤성이와 태민이는 엄마가 보여주는 그림책을 바라보거나 엄마의 행동이나 이야기 등에 반응하여 엄마의 얼굴이나 그림책을 말없이 바라봄으로써 싫거나 좋다는, 듣거나 보고 있다는, 혹은 계속 보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바라보기’와 같은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엄마와 상호작용 하였다.

2) 책장 넘기기로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표현하기

영아들은 엄마와 그림책을 볼 때 스스로 그림책의 책장을 넘기는 행동을 통해 다음 내용이 궁금한지, 다 읽었는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책장 넘기기는 영아에게 매우 흥미 있는 활동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영아 스스로 그림책을 넘기는 것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영아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찰 1-5>

윤성 : (엄마가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는 사탕 그림에 얼굴을 가까이 댄다.)

엄마 : (사탕을 손가락으로 계속 만지며)

“새콤달콤한 것은 병속의 사탕. 오도독 사탕은 알록달록해.”

윤성 : (엄마가 만지는 사탕을 만져보고 그림책을 넘긴다.)

엄마 : “알록달록한 것은 내 옷에 단추.”

“둥글 납작 단추는 너무 귀여워.”

윤성 : (그림책을 덮었다가 다시 폈다 반복하며 그림책을 본다.)

엄마 : (그림책을 잡아 펼치며) “얹! 작고 귀여운 것은 많아.”

윤성 : (그림책을 덮어서 겉표지를 본다.)

(2012. 11. 11. 참여관찰)

윤성이는 엄마가 그림책의 동그랗게 뚫린 부분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만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엄마가 만지는 곳을 보고 같이 만져보기도 하고, 그림책을 이리저리 넘겨보면서 그림책에 관심을 보였다.

<관찰 1-6>

윤성 : (그림책을 이리저리 넘긴다.)

엄마 : (그림책을 잡고 펼치며) “송이야 카레밥 먹자.”

윤성 : (그림책을 뺏으려하며) “으으응” (징징 거린다.)

엄마 : (들고 있던 그림책을 윤성에게 건넨다.)

윤성 : (그림책을 덮어 겉표지를 잠시 보다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며 그림책을 본다.)

엄마 : (윤성의 행동을 가만히 바라본다.)

윤성 : (그림책의 한 곳을 펼치고는 고개를 끄덕하며) “응응”
(엄마를 보며 엄마에게 그림책을 건넨다.)

엄마 : “여기 볼거야?” (그림책을 받으며)
“송이 입속에 당근이 쏘옥.”

(2012. 12. 09.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과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할 때 윤성이 그림책을 이리저리 넘기는 것을 보고 넘기지 못하도록 그림책을 붙잡은 후 그림책 내용을 계속 읽어주었다. 그러면 윤성은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엄마에게 짜증을 내며 그림책을 뺏어 이리저리 넘기며 그림책을 혼자서 보았다. 하지만 윤성이 이리저리 그림책을 넘기는 것을 가만히 기다려주었더니 윤성이 읽고 싶은 부분을 골라 펼쳐서 엄마

를 보고 그림책을 건네며 계속 그림책을 읽어 주기를 엄마에게 요구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면담 1-1>

연구자는 윤성이 어머니에게 “처음과 달리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을 넘기는 것을 왜 기다렸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덮으면 그만 읽고 싶다고 표현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림책을 계속 읽다보니까 윤성이 그림책 넘기는 것을 기다려도 계속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

(2012. 12. 09. 관찰 후 윤성이 어머니 면담)

그림책 읽기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이 그림책을 덮으면 그림책을 어머니가 다시 잡고 펼쳐서 그림책 읽기 활동을 지속하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성이 그림책을 이리저리 넘기거나 덮어버려도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왜 기다려주었는지에 대해 어머니에게 질문 했고 어머니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다.

태민이도 윤성이처럼 그림책 넘기기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엄마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관찰 1-7>

엄마 : (가면 그림책의 양 그림을 얼굴에 대고) “에헤헤~ 에헤헤~”

태민 : (엄마를 보고 웃으며 엄마에게 다가온다.) “하하하하”

엄마 : (태민이를 엄마 무릎에 앉히며) “태민이도 해봐.

태민 : (엄마 무릎에 앉아 엄마가 들고 있던 그림책을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고 그림책을 넘긴다.)

엄마 : (태민이가 넘기는 것을 거들어 주며) “고양이. 야옹~야옹~.”

태민 : (그림책을 넘긴다.)

엄마 : (태민이가 넘기는 것을 거들어 주며) “멍멍. 멍멍. 강아지.”

태민 : (그림책을 넘긴다.)

(2013. 01. 13. 참여관찰)

태민이는 엄마가 들고 있는 그림책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림책을 들고 보면서 그림책을 넘기는 것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자신이 그림책을 들고 있을 때 그림책 읽기 활동에 더욱 집중했다. 엄마는 태민이가 그림책을 넘기는 속도에 맞추어 동물들의 이름과 울음소리를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나 흥내를 내다가 태민이가 그림책을 넘기려고 할 때 살짝 거들어 주며 그림책 읽기 활동을 이어 나갔다.

<관찰 1-8>

태민 : (경찰차 소리가 나는 버튼을 누른다.)

엄마 : (태민이에게 다가가며) “우와~. 멋진 경찰차네.”

태민 : (경찰차 그림을 가리키며) “응”

엄마 : “경찰차네. 뒤에는 뭐가 있을까?”

태민 : (그림책을 넘기며 손가락으로 자전거를 가리킨다.) “응”

엄마 :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태민 : (그림책을 넘기며 손가락으로 배를 가리킨다.) “응”

(2012. 12. 22. 관찰내용)

또한 그림책을 넘기면 뒷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면 태민이는 그림책을 넘기면 뒷장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그림책을 넘기면서 그림책 읽기를 이어 나갔다.

3) 어머니의 행동 모방하기

영아들은 엄마와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가 하는 행동을 모방하여 흥내를 내기도 하였는데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하는 행동이나 동작들이 재미 있거나, 엄마와 그림책을 읽을 때 나는 소리와 놀이를 할 때와 같이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영아들은 호기심을 갖게 되며, 엄마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림책 보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찰 1-9>

엄마 : (그림책을 한 장 넘기고 한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리며)

“까꿍~”

윤성 : (엄마를 보고 웃는다.) “히히히히”

엄마 :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리며) “까꿍~”

윤성 :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내리며 엄마를 보고 웃는다.)

“갈갈갈”

엄마 : (윤성이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까꿍~”

윤성 : (얼굴을 가렸다 손을 내리며 엄마가 했던 행동을 흉내 낸다.)

엄마 : (윤성의 행동을 보고 웃는다.)

(2012. 12. 01. 참여관찰)

윤성은 ‘까꿍’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가 하는 ‘까꿍’에 흥미를 느꼈다. 엄마 얼굴이 손바닥 뒤에 가려졌더라도 ‘저 손을 치우면 엄마 얼굴이 다시 나타 날거야.’ 하는 기대를 가졌고, 실제 손을 치웠을 때 엄마 얼굴이 나타나자 즐거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윤성은 엄마의 반복적인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후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가 내리면서 엄마 얼굴을 보고 웃으며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윤성의 따라 하기

상호작용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도 관찰 할 수 있었다.

<관찰 1-10>

엄마 : (그림책에 붙어있는 딸랑이를 흔들며) “뽕글뽕글 딸랑딸랑”

윤성 : (소리가 나자 엄마에게 걸어온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친구들아, 안녕. 햇님이 방긋방긋 웃으며 인사해요.”

(딸랑이를 돌리고 흔들며) “뽕글뽕글 딸랑딸랑”

윤성 : (엄마가 잡고 있는 딸랑이를 잡는다.)

엄마 : (엄마가 빈손을 흔들며 입으로 소리를 낸다.)

“뽕글뽕글 딸랑딸랑”

윤성 : (엄마를 바라보면서 딸랑이를 흔든다.)

(딸랑이에서 소리가 나자 윤성이 웃는다.)

(2013. 01. 20.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윤성은 엄마가 흔드는 딸랑이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엄마에게 다가와 엄마가 들고 있는 딸랑이를 잡았다. 윤성이 어머니는 빈손으로 딸랑이를 흔드는 것처럼 손동작을 하며 입으로 소리를 냈다. 윤성은 엄마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딸랑이를 들고 있는 손을 엄마처럼 흔들었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즐겁게 웃었다. 이처럼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윤성은 그림책 읽기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아래는 윤성이처럼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며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하는 태민이의 사례이다.

<관찰 1-11>

엄마 : “태민아, 토끼네.” (토끼 흉내를 내며 노래를 부른다.)

태민 : (엄마를 바라보고 웃는다.) “히히히히”

엄마 : “깡충깡충 뛰면서. 태민이도 해봐. 깡충깡충”

(토끼 흉내를 낸다.)

태민 : (손을 머리에 올리고 따라하다가 일어나서 토끼처럼 뛰다.)

엄마 : “아고 잘하네. 깡충깡충”

(2012. 11. 10.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태민이는 엄마가 두 손을 머리위에 올리고 토끼 흉내를 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웃기만 했는데 엄마가 “태민이도 해봐”하는 말을 듣고 엄마처럼 머리에 손을 올리고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토끼가 뛰는 것처럼 ‘깡충깡충’ 뛰기도 했다. 이처럼 신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것을 관찰한 후 엄마처럼 버튼을 눌러보는 행동도 했다.

<관찰 1-12>

태민 : (그림책을 넘기고 헬리콥터를 가리키며 엄마를 보고 말한다.)

“응?”

엄마 : “헬리콥터. 어떤 소리가 날까요?”

(헬리콥터 버튼을 누른다.) “두두두두”

태민 : (엄마가 눌렀던 헬리콥터 그림 버튼을 다시 눌러본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태민아, 이거 봐.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자전거 그림 버튼을 누른다.) “따르릉 따르릉”

태민 : (엄마가 눌렀던 자전거 그림 버튼을 다시 눌러본다.)

(2013. 01. 20. 참여관찰)

태민이는 엄마가 그림책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엄마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엄마가 누르는 버튼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가 엄마가 이야기를 한 후 그림책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나면 엄마가 눌렀던 버튼을 따라서 눌러보며 엄마와 그림책 읽기를 이어나갔다.

이렇듯 영아들이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여 따라하는 행동은 즐거움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상호작용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즐거움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상호작용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모방하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관찰 1-13>

엄마 : (풍선 그림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만진다.)

“둥글둥글 둥그런 풍선. 알록달록 풍선은 하늘에 둥둥.”

윤성 : (엄마가 만지는 풍선그림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미소 짓는다.)

엄마 : (책장을 넘기고) “다음. 둥둥 하늘 높이 떠 있는 햇님.”

(햇님을 손가락으로 만진다.)

윤성 : (그림책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햇님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고 미소 짓는다.)

(2012. 11. 18.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처럼 연령이 어린 윤성이는 엄마가 그림책을 만지는 것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은 호기심에 엄마가 만지고 있는 풍선그림이나 해 그림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은 윤성이가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고, 자신도 엄마처럼 직접 그림을 만져봄으로써 호기심을 해결함과 동시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 윤성이 보다 월령이 6개월 빠른 태민이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아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관찰 1-14>

엄마 : (그림책을 가리키며) “오토바이네.”

(오토바이 그림 버튼을 누르며) “부릉부릉. 부릉부릉”

태민 : (엄마가 눌렀던 오토바이 버튼을 눌러본다.)

엄마 : “부릉부릉. 오토바이야.” (그림책을 넘긴다.)

“자동차. 빵빵.” (자동차 그림 버튼을 누른다.)

태민 : (자동차 그림 버튼을 누르며) “빵빵. 빵빵”

엄마 : “빵빵. 자동차네.”

(2012. 12. 09. 참여관찰)

태민이는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과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사물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내는 소리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엄마가 버튼을 누르는 것을 모방하여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것을 먼저 학습하였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자동차와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리의 차이점을 이해했다. 이처럼 영아들은 단순히 엄마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는 행동에서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모방행동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 1-2>

“예전에 그림책을 볼 때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계속 읽다보니까 태민이가 제가 누르는 그림의 버튼을 같이 누르고 있더라고요. 누르기만 하는 것도 있었지만 태민이가 타 본적이 있는 자동차 같은 건 소리까지 따라하

는 걸 보니까 책 읽어 주는게 더 재미있더라구요.”

(2012. 12. 09. 관찰 후 태민이 어머니 면담)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이가 그림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당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무척 힘들어 했다. 그런데 3주 정도 꾸준히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태민이 어머니와 태민이의 그림책 읽기 과정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태민이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기 활동이 많이 수월해진 것 같다는 연구자의 말에 어머니는 태민이가 그림책 읽기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태민이가 따라 하는 행동을 보고 알게 되었고, 태민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니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던 그림책 읽기 활동이 조금씩 즐겁게 느껴진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

4) 미소와 웃음으로 지속시키기

영아가 웃거나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이 현재 행복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전략이다. 어머니와 그림책 읽기를 하면서도 그림책의 내용이나 엄마의 행동 등으로 인해 영아는 미소를 짓거나 소리를 내어 크게 웃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어머니와 상호작용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표현은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을 더욱 길게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영아에게도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관찰 1-15>

엄마 : (팝업으로 된 물고기의 입을 올렸다 내렸다하며)

“풍덩풍덩 물개가 먹지. 꿀꺽, 꿀꺽”

윤성 : (엄마를 바라보며) “헤헤헤헤” 하고 웃는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맨들맨들 빼다귀는 누가 먹을까?”
 윤성 : (강아지의 눈을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만진다.)
 엄마 : “뽕뽕뽕 강아지가 와서 먹지.”
 (팝업으로 된 강아지의 입을 올렸다 내렸다하며)
 “꿀꺽, 꿀꺽”
 윤성 :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림책 가까이로 얼굴을 갖다 댄다.)

(2012. 10. 20. 참여관찰)

윤성이는 엄마가 그림책에 나온 동물들의 입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꿀꺽꿀꺽’하는 의성어 소리에 웃음소리를 내며 그림책 읽기에 관심을 보였고, 그림책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촉감을 느끼는 것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찰 1-16>

윤성이가 그림책에서 뽕 딸기 퍼즐을 만지면서 엄마를 보고 웃는다.
 엄마 : (퍼즐이 빠진 그림책을 가리키며) “딸기, 여기 넣어봐.”
 윤성 : (딸기 퍼즐을 만진다.)
 엄마 : “안 넣어?”
 윤성 : (엄마에게 딸기를 보여주며 미소 짓는다.) “딸”
 엄마 : “응. 딸기. 딸기지.” (그림책을 넘기며)
 (딸기 그림의 촉감 판을 만지며) “딸기 얼굴은 주근깨투성이”
 윤성 : (딸기 촉감 판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엄마를 보고 미소 짓는다.)
 엄마 : (윤성과 함께 촉감 판을 만지며) “오돌토돌 하지?”

(2013. 01. 12. 참여관찰)

윤성이는 그림책에 있는 딸기 그림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처럼 엄마가 하는 행동과 엄마가 내는 소리에 즐거워하였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며 엄마와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윤성이는 소근육을 사용하며 엄마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지만 태민이는 윤성이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관찰 1-17>

엄마 : (코끼리 코 흉내를 내며 노래 부른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끼리 코를 한 손으로 태민의 배를 만진다.)

태민 : (침대 위에 앉아 뒤로 넘어지면서 웃는다.) “크하하하하”

엄마 : (손을 풀고 그림책을 보여주며) “태민아, 코끼리야 코끼리”

태민 : (몸을 굴러서 앉으며 그림책을 본다.) “어?”

엄마 : “이거 봐. 코끼리 아저씨네.”

태민 : (그림책을 보면서 웃는다.) “하하하하.”

(2012. 11. 10. 참여관찰)

평소 활동적이고 소리 내어 웃는 것을 좋아하는 태민이는 엄마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미소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엄마의 작은 행동에도 크게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민이는 엄마가 동물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동물 흉내를 내거나 동물의 울음소리를 표현해 줄 때면 웃으면서 몸을 뒤로 쓰러뜨리거나 이리저리 도망가는 등 큰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의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엄마와 상호작용을 했다. 동물 흉내를 내면서 엄마가 자신의 배를 만지는 것이 간지러워서 피하기는 했지만 엄마의 행동이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을 읽는 하나의 즐거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태민이가 즐겁게 웃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그림

책 읽기 활동에서도 태민이의 미소와 웃음으로 지속시키기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었다.

<관찰 1-18>

엄마 : (그림책의 돼지 그림을 펼치며 가면처럼 쓰고)

“돼지. 꿀꿀. 꿀꿀”

태민 : (그림책 가까이 다가가 뿔려있는 구멍을 바라본다.)

엄마 : (태민이에게 다가가면서) “꿀꿀.”

태민 :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면서 웃는다.) “크하하하하”

엄마 : (그림책을 태민이에게 주며) “태민이도 해봐~”

태민 :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며 웃는다.) “크하하하하.”

(2012. 12. 02. 참여관찰)

태민이는 엄마가 그림책을 가면처럼 쓰고 동물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살짝 무서워서 하며 도망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즐거워하며 신나게 웃기도 했다.

<면담 1-3>

“예전에는 그림책을 읽으려고만 하면 그림책은 안보고 딴 짓을 하거나 혼자 웃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림책을 읽어주면 그림책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덩달아 신나서 그림책을 읽어주게 되요.”

(2012. 12. 02. 관찰 후 태민이 어머니 면담)

이러한 영아들의 미소 짓기나 웃음으로 지속시키기 상호작용은 태민이 어머니의 면담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머니들의 그림책 읽기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관찰 1-19>

엄마 : (그림책을 펼쳐 가면서 쓰고) “음모~, 음모~.”

태민 : (그림책을 가면서 쓴 엄마를 보고 뒤로 넘어가며 웃는다.)

“크하하하하”

엄마 : “재밌어요?” (그림책을 넘겨 가면서 쓰고) “멍멍~.”

태민 : (뒤로 넘어가며 웃는다.) “크하하하하”

엄마 : “재밌어? 다시 볼까?” (그림책을 다시 처음으로 넘기며)

태민 : (그림책을 넘기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다.)

(2013. 01. 05.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태민이가 즐겁게 웃는 것을 보면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이가 지금 읽고 있는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태민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그림책을 또 읽어주고 싶어서 “다시 볼까?”하고 태민이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림책을 한 번 더 읽어주려고 했다. 태민이도 엄마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이 흥미로웠는지 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책을 넘기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 엄마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밀치거나 책 덮기로 거부 의사 표현하기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영아가 그림책을 밀치거나 책을 덮어버리는 것은 현재 그림책을 읽고 싶지 않다는 영아의 거부하기 상호작용 전략이다.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원하는 그림책이 아닐 때나 그림책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주로 그림책을 밀치거나 그림책을 덮는 행동이 나타났다. 이렇듯 영아의 거부의사는 다양하게 표현 되었는데 엄마가 그림책을 보여주면 그림책을 밀치기도 하고 엄마에게서 그림책을 뺏어 덮어버리면서 그림책 보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그림책을 읽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엄마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그림책 읽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아직 언어적 표현이 서툰 영아들은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신체적으로 표현하며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관찰 1-20>

엄마 : “애벌레가 뽀족뽀족 산길을 지나가요.”

(윤성이 손을 그림책의 산 모양에 댄다.)

윤성 : (엄마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며)

“이이이이~~” (인상을 쓴다.)

엄마 : “안해? 괜찮아. 만져봐” (윤성의 손을 그림책에 갖다 댄다.)

윤성 : “아아아아~~” (팔을 흔들며 그림책을 밀친다.)

엄마 : “알았어.” (그림책을 계속 읽어준다.)

(2012. 12. 15. 참여관찰)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이가 그림책을 직접 만져보며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윤성의 손가락을 잡고 그림책에 손을 갖다 댔다. 하지만 윤성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그림책을 밀치며 그림책 만지기를 거부했다. 소극적인 성격으로 조심성이 많은 윤성은 엄마가 그림책을 만져보라고 했지만 처음 접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림책에 손대는 것을 싫어했다. 윤성은 그림책을 만지기 싫다는 것을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 엄마에게 전달했다. 윤성이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림책을 함께 만져볼 것을 권했지만 윤성이가 계속 거부하자 촉감을 느끼는 것은 그만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기만 했다.

<관찰 1-21>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와 예쁜 무지개다.”

윤성 : (엄마 무릎에서 일어나 몸을 돌려 엄마를 본다.)

엄마 : (윤성을 바라보며) “이거 안 볼거야?”

윤성 :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고개는 엄마 쪽으로 돌려 엄마를 바라보며 현관으로 걸어간다.)

엄마 : (그림책을 가리키며) “책 안 봐?”

윤성 : (현관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엄마를 바라보며) “어?”

엄마 : (읽고 있던 그림책을 정리하고 일어서서 윤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2012. 11. 25.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성은 엄마와 그림책 읽기 활동이 하기 싫어지면 그림책을 읽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림책 읽는 시간이라는 것을 모른척하며 엄마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다. 이전에 엄마와 그림책을 잘 읽고 있던 윤성이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을 가리키며 엄마를 바라보는 행동도 그림책을 그만 읽기를 원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윤성이 어머니도 윤성이 더 이상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림책을 정리한 후 윤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면서 그림책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면담 1-4>

연구자는 윤성의 참여관찰을 마친 후 윤성이 어머니에게 ‘윤성이 싫어하는데 그림책을 왜 계속 만지게 했나요?’라고 문의 했다. 윤성이 어머니는 연구자의 질문에 “윤성이 평소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서 적극적으로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지면서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림책을 자꾸 읽어서 익숙해지면 만지겠죠?”라고 말했다.

(2012. 11. 25. 관찰 후 윤성이 어머니 면담)

평소 윤성이가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던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통해 윤성이가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익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윤성이가 겁내하더라도 엄마가 먼저 만지는 것을 보여주고 안전하니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아래의 사례는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난 태민이의 거부하기 상호작용 전략이다.

<관찰 1-22>

태민 : (책꽂이에서 ‘소리놀이’ 그림책을 꺼내서 펼친다.)

엄마 : (태민이에게 다가가며) “그거 볼까? 소리놀이.”

태민 : (보던 그림책을 덮는다.)

엄마 : (다시 그림책을 펼치며) “이거 봐. 숭숭숭”

태민 : (엄마가 보여주는 그림책을 뺏어서 덮고 다른 그림책을 꺼내서 본다.)

(2012. 10. 27. 참여관찰)

태민이가 혼자 그림책을 펼쳐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는 태민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태민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엄마가 다가오자 태민이는 그림책을 보다가 갑자기 보고 있던 그림책을 덮어버렸다. 이는 태민이가 혼자서 그림책을 보길 원했는데 엄마가 다가와서 그림책을 만지자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싫다는 자신의 의사를 신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태민이가 덮어버린 그림책을 엄마가 다시 펼쳐서 읽어주려고 했더니 태민이는 다른 그림책을 책꽂이에서 꺼내 보면서 함께 읽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더욱

확실히 표현하였다.

<면담 1-5>

“읽어주려는 건데 가까이 가면 그림책을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또 펼쳐서 혼자 보니까 그림책 읽어 주는게 힘들어요. 읽어주기는 해야겠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기도 하구요.”

(2012. 10. 27. 관찰 후 태민이 어머니 면담)

그림책 읽기 활동을 시작한지 2주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태민이의 어머니는 연구자에게 태민이와 함께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어도 엄마가 다가가면 다른 그림책을 펼쳐서 혼자 보는 것을 보면 엄마와 함께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 해 주었다.

아래의 사례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나타난 태민이의 거부하기 표현방법이다.

<관찰 1-23>

태민 : (침대에 앉아 그림책을 보다가 침대 위에 눕는다.)

엄마 : (몸을 뒤로하며 침대에 몸을 눕히려고 하는 태민이를 붙잡아서 다시 바르게 앉힌다.)

“태민아, 이거 봐. 우와~, 자동차네.”

태민 : (엄마가 보여주는 자동차 모양으로 된 그림책을 손으로 쳐서 옆으로 밀친다.)

엄마 : “이거 봐. 뽕뽕.”

(자동차 그림책을 자동차가 가듯이 움직인다.)

태민 : (그림책을 밀치며 다시 침대 위로 몸을 눕힌다.)

(2012. 10. 21. 참여관찰)

태민이는 그림책이 읽기 싫어지면 윤성이처럼 그림책을 밀치기도 했지만 그림책을 읽고 있는 침대 위에 그대로 누워버리기도 했다. 태민이는 그림책을 읽을 때 항상 침대 모퉁이에 앉아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는데 앉아서 그림책을 읽다가 그림책이 보기 싫어지면 몸을 점점 뒤로 눕혀 침대 위에 누워버렸다. 엄마는 태민이를 계속 일으켜 앉히지만 태민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그림책 읽기를 거부하였다. 또한 엄마가 부르는 소리나 엄마의 행동에 상관없이 장난을 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림책 읽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관찰 1-24>

엄마 : “태민아, 다른 책 볼까? 뭐 볼까?”

(책꽂이에서 그림책을 고른다.)

태민 : (엄마가 이름을 부르거나 책 고르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침대 위에서 점프를 한다.)

엄마 : (그림책을 꺼내며) “태민아, 이거 보자~.”

태민 : (침대위에서 계속 점프하며 엄마를 보고 웃는다.) “하하하”

엄마 : “이리와. 책 보자.”

태민 : (침대위에서 점프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웃는다.) “크크크크크”

엄마 : (그림책을 정리하며 혼잣말로) “오늘은 끝.”

(2012. 11. 17.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그림책을 고르며 태민이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 했지만 태민이는 엄마가 부르는 것을 듣고 엄마를 잠깐 바라보고는 계속 침대 위에서 점프하고 장난치면서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태민이 어머니는 여러 번 반복하여 태민이를 불렀지만 태민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읽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그림

책을 정리하며 그림책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윤성이와 태민이의 그림책 읽기 활동을 관찰하면서 그림책 읽기 활동이 마무리되는 순간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윤성이 어머니와 태민이 어머니에게 “그림책 읽기 활동의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던데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만 읽어 줄 때는 언제인 것 같나요?”라고 질문했다. 아래의 내용은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어머니들의 면담내용이다.

<면담 1-6>

“그림책을 읽다가 태민이가 관심이 없어지면 그림책을 얼마 읽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림책 읽기를 포기하게 되요. 계속 이름을 불러도 관심도 없고, 강제로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혀도 금방 도망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12. 11. 17. 관찰 후 태민이 어머니 면담)

<면담 1-7>

“윤성은 책을 보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거나 장난감을 만지면서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럴 때는 더 이상 그림책을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림책을 정리하고 그만 읽는 거죠.”

(2012. 11. 25. 관찰 후 윤성이 어머니 면담)

윤성이 어머니와 태민이 어머니 모두 영아와 그림책 읽기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아가 그림책 읽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으면 그림책을 정리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정확한 마무리 활동이 없었던 것에 대해 어머니들은 더 읽고 싶어도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그림책을 계속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들 스스로 그림책을 정리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한 것이다.

2.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어머니 상호작용 전략

만 1세 영아들이 처음부터 읽고 싶은 그림책을 독자적으로 선택하거나 읽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영아들이 그림책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영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까이 있는 성인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림책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는 영아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할 때 영아의 관심을 끌어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그림책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때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사용하는 상호작용으로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시키기, 그림의 특성을 살리는 음성언어 사용하기, 영아의 경험과 책 내용 연결시키기, 영아 의사 확인하기 및 참여시키기, 설명을 통해 정보 제공하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및 신체 움직임을 이용한 관심 끌기로 나타났다.

1)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시키기

어머니들은 영아와 그림책 읽기를 시작하려 할 때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환기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영아들이 그림책에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영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영아에게 그림책을 보자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가져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우와~”, “이게 뭘까?” 등의 감탄사를 이용한 언어적 자극을 많이 사용해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의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시키기 상호작용은 영아들이 그림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다양한 감탄사를 사용한 언어적 자극은 영아에게 그림책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흥미롭게 그림책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 2-1>

엄마 : “윤성아, 책보자. 내 당근 봤니?”

윤성 : (텔레비전을 보던 윤성이가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윤성아, 윤성이 이리와.” (윤성이를 부르는 손짓을 한다.)

윤성 : (엄마에게 기어서 다가온다.)

(2012. 10. 20.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윤성이는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그 때 엄마는 그림책 하나를 꺼내서 앉으며 소리가 나지 않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윤성이의 이름을 불렀다. 윤성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고,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이가 돌아보자 윤성이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며 손짓을 했다. 윤성이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와 엄마의 손짓에 관심을 보이며 엄마에게 다가왔다. 아래의 사례에서도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이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 2-2>

엄마 : “윤성아, 윤성이 우리 책 보자.”

윤성 : (그림책을 고르려고 책꽂이로 걸어간다.)

엄마 : “윤성이가 보고 싶은 책 가져와.”

윤성 : (그림책을 하나 꺼내 몸을 돌려 엄마에게 걸어온다.)

엄마 : (윤성이의 그림책을 받으며) “내 당근 봤니?”

윤성 : (엄마 앞에 앉아 그림책을 본다.)

(2012. 12. 22. 참여관찰)

윤성이 어머니가 윤성이의 이름을 부르면 윤성이는 엄마의 부름에 관심을 보이며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였다. 영아들에게 이름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

시키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로서 영아는 자신의 이름이 곧 자기를 지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이름이 불리는 방향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된다(최예린, 2010).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기 전에 영아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아의 이름 부르기를 자주 사용하였다. 특히, 이름 부르기 상호작용은 1세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는 주의환기 방법으로 태민이 어머니도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태민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관찰 2-3>

태민 : (책꽂이 앞에 앉아 그림책을 만지고 있다.)
 엄마 : (곰돌이 그림책을 들며) “태민아, 이거 봐.”
 태민 :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어?”
 엄마 : “태민아.” (그림책을 좌우로 흔든다.)
 태민 : “어?”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엄마 : “태민아, 이리와 봐. 태민.”

(2012. 11. 04. 참여관찰)

태민이는 그림책이 꽂혀진 책꽂이 앞에 앉아 그림책을 하나씩 만지고 있었다.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이의 관심을 끌어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태민이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렀다. 태민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라는 소리를 내며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였다.

<관찰 2-4>

엄마가 자동차 그림책을 들고 앉으며 태민이를 부른다.
 엄마 : “태민아, 엄마는 이거 본다.” (그림책의 버튼을 누른다.)
 태민 : (소리가 나자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본다.)

엄마 : “태민이도 해봐.” (그림책을 태민이에게 보여준다.)

태민 :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응?”

엄마 : “이리와, 태민아.” (손짓으로 태민이를 부른다.)

(2012. 12. 09.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여러 번 반복하여 태민이의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는 태민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고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와 함께 그림책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태민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태민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짧게 대답 하거나 손가락을 가리키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림책을 보기위해 선뜻 엄마에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상호작용 방법으로 감탄사를 사용하기도 했다.

<관찰 2-5>

엄마가 책꽂이에 책을 꺼내 자리에 앉는다.

엄마 : “우와. 윤성아, 둥글게 둥글게.”

(그림책 겉표지의 둥근 모양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윤성이를 본다.)

윤성 : (책꽂이 앞에 서 있던 윤성이가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목소리를 높여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뭐야?”

(그림에 손가락을 대고 빙글빙글 돌리며)

“우와. 둥글게 둥글게” “이거 봐.” (윤성이를 바라본다.)

윤성 : (가만히 보고 있던 윤성이가 손가락으로 그림책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다가온다.)

(2012. 11. 11.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에게 그림책을 읽어 줄 때 “우와~”하는 감탄사를 사용하였고,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조금 높게 하여 말하였다. 엄마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면 윤성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시선을 엄마에게 돌렸다.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이게 뭐야?”, “이거 봐”하고 놀라듯 말하며 윤성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감탄사와 함께 그림책을 가리켜서 엄마를 바라보던 윤성의 시선이 그림책으로 향하게 되면 “이거 봐”라고 말하며 윤성의 흥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림책에 그려진 원에 손가락을 대고 따라 그리며 윤성이 그림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 2-6>

엄마 : “어떤 얼굴일까? 이거 봐. 어떤 얼굴이지?”

윤성 :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고 목소리 톤을 높인다.)

“우와. 야옹이가 길을 가고 있네?”

윤성 : (가만히 엄마를 보던 윤성이가 엄마에게 기어온다.)

엄마 : “윤성아, 이거 봐. 야옹이야.”

(고양이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윤성에게 보여준다.)

(2012. 12. 15.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도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윤성에게 알려주기 위해 목소리 톤을 높이며 “이거 봐”라고 이야기 하였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윤성은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며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전략은 그림책을 읽어주고자 할 때마다 자주 나타났으며 영아들은 엄마가 목소리 톤을 높여 표현하는 감탄사가 나올 때마다 엄마가 들고 있는 그림책에 시선을 옮겨 책에 대

한 호기심을 나타내곤 했다. 태민이 역시 엄마가 감탄사를 사용하며 읽어주는 그림책에 관심을 보였다.

<관찰 2-7>

엄마 : (그림책을 펼치며) “태민아, 이거 봐봐. 우와.”

태민 : (침대에 앉아서 그림책을 한번 바라보고 몸을 뒤로 눕히며
침대에 눕는다.)

엄마 : “태민아, 이게 뭐지? 이야~.”

태민 : (침대에 누운 채로 몸을 빠르게 돌려 엄마를 본다.) “으응?”

엄마 : “이거 봐. 이거.”

(태민이를 한번 바라본 후 그림책을 가리키며 바라본다.)

(2012. 10. 27.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와~”, “이야~”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여 그림책에 놀라운 것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며 태민이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태민이는 엄마가 말하는 감탄사에 그림책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빠르게 엄마를 향해 몸을 돌리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태민이는 그림책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엄마가 왜 놀라는지 호기심은 생겼지만 선뜻 일어나 바로 엄마에게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태민이가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고 그림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태민이 쪽으로 그림책을 돌려서 보여주는 대신 그림책을 한 장 넘기고 다시 한 번 “이거 봐~.”라고 말하며 태민이가 다가와서 그림책을 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관찰 2-8>

엄마 : (그림책을 펼쳐서 보며) “우와~ 멋지다.”

태민 : (들고 있던 그림책을 펼쳐서 보다가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태민이를 한번 바라본 후 그림책을 바라보며)

“이야~. 이거 봐. 경찰차야~.”

태민 : “어?”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간다.)

엄마 : (그림책을 태민이에게 보여주며)

“이거 봐~. 멋진 경찰차가 있네.”

(2013. 01. 20. 참여관찰)

태민이는 엄마가 하는 감탄사와 행동을 보고 그림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엄마 곁으로 스스로 다가왔고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이가 다가오자 그림책을 태민이에게 보여주며 읽어주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들은 그림책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하여 “우와~”, “이게 뭐야?”, “이야~” 등과 같은 감탄사를 자주 사용하였고 그때마다 영아들은 엄마 곁으로 다가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그림책을 바라보며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소리로 표현하면 영아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궁금해 하며 어머니 가까이로 다가와 그림책을 바라보았다.

2) 그림의 특성을 살리는 음성언어 사용하기

영아들이 보는 그림책에는 동식물에 관한 것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 그림이 그려져 있다. 영아 어머니들은 영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자 할 때 책 속의 이야기보다는 그림의 특성에 맞는 음성언어를 흉내 내며 그림책을 읽어주어 영아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가령 그림책에 그려진 동물의 울음소리를 언어로 표현해 주거나 음식을 먹는 소리, 사물의 소리 등 다양한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영아의 흥미를 끌어내거나 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켰다.

<관찰 2-9>

엄마 : (책을 보고 다가오는 윤성이를 보며 미소 짓는다.)

“아삭아삭 당근은 누가 먹을까?”

“깡충깡충 토기가 와서 먹지.”

윤성 : (왼손을 엄마 어깨에 올리고 기대며 그림책을 바라본다.)

엄마 : (뺨업으로 된 토끼의 입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냐암, 꿀꺽, 꿀꺽”

윤성 : (그림책을 보며 웃는다.) “헤헤헤”

(2012. 10. 20. 참여관찰)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사람이나 사물 등 그림의 특성을 살리는 의성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당근 그림을 보고는 “아삭아삭 당근”이라고 읽거나 토끼 그림을 보고는 “깡충깡충 토끼” 식으로 그림과 관련된 의성어를 사용하여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관찰 2-10>

윤성이가 그림책을 혼자 넘기며 보고 있다.

엄마 : (그림책을 잡으며)

“이거 볼거야? 감자가 송이 입속으로 쏘옥.”

“윤성이 입속에도 감자가 쏘옥”

(윤성이 입에 손가락을 댄다.)

윤성 : (엄마의 행동에 웃는다.) “헤헤헤”

엄마 : “송이가 감자를 낚낚 먹네.”

윤성 : (자신의 입을 벌리면서 손가락을 엄마 입으로 가져간다.)

“응.”

(2012. 12. 22.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보듯이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의 내용에 쓰여 있는 의성어를 그대로 읽어주기도 했지만 그림책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어머니가 즉흥적으로 “냠냠”, “쏘옥”과 같이 다양한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윤성이가 그림책에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태민이 어머니 또한 똑같은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태민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관찰 2-11>

엄마 : (팝업 책을 펼치며) “아주 큰 벚나무에~.”
 태민 : (엄마가 들고 있는 그림책을 들며 침대 위에 앉는다.)
 엄마 : (태민이를 엄마 가까이 앉히며)
 “꼬꼬댁 꼬꼬꼬, 벚나무 밑에는 꼬꼬닭도있어요.”
 태민 : (그림책을 가만히 바라본다.)
 엄마 : “태민아, 엄마 봐. 닭은 꼬꼬댁 꼬꼬꼬꼬 하는 거야.”
 태민 : (엄마를 보고 웃는다.) “크하하하하”

(2012. 12. 22.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그림책에 나오는 닭 그림을 보고 ‘닭’이라고 읽어주기 보다 “꼬꼬댁 꼬꼬꼬”, “꼬꼬닭”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태민이의 흥미를 더욱 고조시켜 주었고 이에 태민이는 너무 재미있다는 듯이 큰소리로 웃으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태민이 어머니는 동물과 관련된 음성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사물과 관련된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관찰 2-12>

엄마 : (자동차 모양 그림책을 들고) “태민아, 자동차네.”
 (자동차가 가는 모습을 흉내 내며)
 “뽕뽕뽕. 뚼뚼뽕뽕. 뽕뽕뽕.”

태민 :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자동차가 가는 모습을 흉내 내며)

“자동차가 갑니다. 부웅. 뽕뽕”

태민 :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며 웃는다.) “크크크크”

엄마 : (태민이 앞에서 엄마 쪽으로 자동차를 움직인다.) “뽕뽕”

태민 : (자동차를 따라 움직이며 엄마 앞으로 다가간다.)

(2012. 12. 02.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자동차 그림책을 읽어줄 때에도 자동차가 움직이는 소리를 “붕붕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동차 경적소리를 “뽕뽕”내기도 하면서 태민이가 그림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음성언어를 사용하였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태민이는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할 때 그림책의 내용이나 그림보다 어머니가 내는 소리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태민이의 어머니는 그림책의 흐름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동물 그림이 있으면 다양한 동물 울음소리를 흉내 내고, 자동차와 관련 된 그림책을 읽어 줄 때는 자동차 소리를 자주 사용하며 태민이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면담 2-1>

“태민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하고, 흉내도 내면서 읽어주게 되요. 그렇게 읽어주면 책을 잘 안 보던 태민이가 잠깐이라도 읽어주는 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니까 더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2012. 12. 22. 관찰 후 태민이 어머니 면담)

관찰기간 동안 윤성이 어머니도 윤성에게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다양한 음성언어를 사용하였지만 특히 태민이의 어머니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물의 특성을 살리는 소리를 많이 사용

하였다.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이 다양한 소리를 흉내 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태민이도 그림책에 관심을 보였고, 즐겁게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3) 영아의 경험과 책의 내용 연결시키기

어머니는 영아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의 내용이 영아가 사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내용이라면 영아에게 “~했지”, “~봤지”와 같은 이야기로 영아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전경험과 그림책의 내용을 연결시켜 그림책 읽기를 진행하였다. 연령이 어린 영아들은 어머니의 이러한 이야기에 언어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그림책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었고, 동시에 그림책과 영아의 일상생활을 연결시켜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관찰 2-13>

엄마 : “윤성아, 이리와”

윤성 : (엄마가 있는 곳으로 기어가서 옆에 앉는다.)

엄마 : “내 당근 봤니?” (윤성이 얼굴을 보며) “내 당근 봤어?”

“송이야 카레 밥 먹자.”

“하지만 송이는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어.”

“난 카레밥 싫어.” (윤성이 얼굴을 보며)

“윤성이는 카레 밥 잘 먹지? 송이는 카레밥이 싫데”

윤성 :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2012. 12. 09. 참여관찰)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평소에 카레밥을 잘 먹는 윤성이에

게 “윤성이는 카레밥 잘 먹지?”라고 물어보면서 평소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것과 지금 그림책에 나온 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연결시키며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또한 아래의 사례처럼 엄마가 윤성이의 경험과 연결시켜주기도 전에 윤성이가 먼저 딸기 그림을 가리키며 딸기에 대해 알고 있는 듯 엄마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관찰 2-14>

윤성이가 바닥에 놓여있는 ‘딸기’ 그림책을 펼친다.

윤성 : (펼친 그림책의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를 본다.) “응응응”

엄마 : (그림책을 잡으며) “응! 딸기네. 딸기!”

윤성 : (퍼즐처럼 꺼내지는 딸기를 꺼내며) “딸딸딸”

엄마 : (윤성이가 꺼내는 것을 도와주며)

“딸기. 윤성이 딸기 어제 먹었지?”

윤성 : (꺼낸 퍼즐을 입에 넣는다.)

엄마 : (윤성이의 행동에 웃으며)

“하하. 맞아. 이렇게 생긴 딸기 먹었었지?”

(2013. 01. 12. 참여관찰)

윤성이는 딸기 그림을 가리키며 딸기를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윤성이가 가리키는 것을 보며 “딸기”라고 명칭을 알려주었고 “딸기 어제 먹었지?”라고 말해주면서 윤성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윤성이는 엄마가 말한 것을 알아듣고 대답이라도 해 주듯 딸기모양 퍼즐을 꺼내 입속에 넣으며 먹는 흉내를 냈다. 엄마도 윤성이가 엄마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윤성이의 행동에 “맞아”라고 말해주며 윤성이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면담 2-2>

“「송이야 카레밥 먹자.」 그림책만 계속 읽으려고 해요. 다양한 책이 많은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소리가 나는 오리 그림책은 무서워하며 도망가지만 카레 그림책은 이거(연구) 시작하고 나서 엄청 많이 읽어서 내용을 제가 다 외웠어요. 카레를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구요. 많이 읽었는데도 윤성이는 아직도 재미있어 해요. 그림책도 만지면서 자기가 입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구요.”

(2013. 01. 13. 윤성이 어머니와의 전화 면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윤성이와 윤성이 어머니는 거의 매주 카레 그림책을 읽었다. 연구가 거의 마무리 될 쯤 윤성이 어머니에게 ‘송이야 카레밥 먹자’ 그림책을 자주 읽었던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림책을 읽어줄 때 윤성이가 카레를 먹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윤성의 경험과 연결시켜 읽어주었고, 처음에는 엄마가 그림책의 팝업창을 조작했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은 후에는 윤성이가 직접 팝업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관찰 2-15>

엄마 : “태민아, 이거 보시게. 붕붕 자동차네”

(자동차 모양의 그림책을 움직인다.)

태민 : (움직이는 자동차 모양의 그림책을 바라본다.)

엄마 : “뽕뽕뽕. 태민이도 아빠 자동차 타봤지?”

(그림책을 움직이며) “자동차가 나갑니다.”

태민 : (엄마와 함께 그림책을 움직이며) “뽕뽕뽕”

(2012. 11. 24.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평소에 자동차를 탄 경험이 있었던 태민이에게

자동차가 가는 모습을 흉내 내면서 태민이가 타 보았던 아빠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태민이가 그림책 읽기 활동에 흥미가 생기도록 하였다. 태민이도 엄마의 이야기에 반응하며 “뽕뽕뽕” 자동차 소리를 내면서 그림책에 손을 대고 함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였다.

<관찰 2-16>

엄마 : (팝업으로 된 그림책을 펼치며) “우와, 목이 긴 기린이에요.”

태민 : (팝업으로 튀어나온 기린을 본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다음엔 뭐가 나올까? 코끼리네. 태민이 이거 어디서 봤지?”

태민 : (코끼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어?”

엄마 : “누나랑 동물원서 봤지? 태민이 빠방타고 동물원 갔었지?”

태민 : (팝업으로 튀어나온 코끼리를 만져본다.)

엄마 : “코끼리야. 코끼리는 코가 아주 길어.”

(2012. 12. 16.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그림책에 나온 코끼리는 보고 자동차를 타고 누나와 함께 동물원에 갔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다. 동물원에서 본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 해 주며 태민이의 사전 경험과 지금 읽고 있는 그림책의 내용과 연결하면서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태민이는 동물원에 간 경험에 대해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림책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였다.

4) 영아 의사 확인하기 및 참여시키기

어머니들은 영아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아에게 “~볼거야?”, “이거 볼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그림책을 계속 볼 것인지 영아의 의사를 물어보기

도 하였고, “어뵈나?”, “어디 있지?”와 같이 그림책과 관련된 질문을 통하여 영아가 그림책 보는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이러한 영아 의사 확인하기 및 참여시키기 상호작용 전략에 영아는 간단한 “응”이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어머니의 질문에 반응하였다.

<관찰 2-17>

엄마 : “다른 책도 볼까?” (다른 그림책을 집으며)

윤성 : (방금 읽은 그림책을 만지다가 엄마가 든 그림책을 바라본다.)

엄마 : (그림책의 표지를 보여주며) “엄마는 딱 알아.”

(그림책을 넘긴다.) “빈빵, 빈빵.”

“우리 열매 빵 먹고 싶구나. 아빠가 빵을 건네주어요.”

윤성 : (바닥에 놓인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림책을 들고 책을 펼친다.)

엄마 : “응? 그거 볼거야?”

(읽던 그림책을 내려놓고 윤성이가 든 그림책을 읽어준다.)

(2012. 10. 27. 참여관찰)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 한 권을 읽고 난 후 다른 그림책을 집으며 “다른 책도 볼까?”하고 윤성이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윤성이는 방금 읽은 그림책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가 다시 엄마가 들고 있는 책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새로운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자 윤성이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림책을 다시 펼쳤고 엄마는 다시 윤성이에게 “그거 볼거야?”하고 질문하며 윤성이가 펼친 그림책으로 바꾸어 읽어주었다.

<관찰 2-18>

윤성이가 그림책을 들어 엄마에게 준다.

엄마 : (윤성이가 주는 그림책을 들며) “이거 볼까? 앉아.”

윤성 : (엄마 무릎에 앉는다.)

엄마 : “뽀뽀기차 타세요. 칙칙뽀뽀 기차 타세요.”

(생략)

윤성 : (엄마 무릎에서 일어나 책꽂이로 간다.)

엄마 : “윤성이 이거 안 볼거야?”

윤성 : (책꽂이의 그림책을 꺼내 들고 엄마에게 다가온다.)

엄마 : “이거 볼거야? 송이 볼거야?”

(2013. 1. 6. 참여관찰)

윤성이는 그림책을 읽다가 다른 그림책이 보고 싶어지면 직접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건네기도 했다. 그러면 엄마는 윤성이가 가져온 새로운 그림책을 보며 “이거 볼거야?”하고 윤성이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보다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한 권을 다 본 후 다른 그림책을 읽을 때나 윤성이가 새로운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때 새로운 그림책을 읽을 건지에 대한 윤성이의 의사를 묻는 질문을 자주 사용하였다. 반면 태민이 어머니는 윤성이 어머니처럼 그림책을 읽을 건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태민이가 그림책 읽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과 관련된 질문을 자주 사용하였다.

<관찰 2-19>

엄마 : (태민이가 들고 있는 그림책을 바라보며)

“태민아 꼬꼬 어땀나?”

태민 : (들고 있던 그림책을 이리저리 넘겨본다.)

엄마 : “꼬꼬 찾아봐 꼬꼬.”

태민 : (닭이 그려진 그림을 가리키며 엄마를 본다.)

엄마 : “아고 잘하네. 꼬꼬 거기 있지? 깡충깡충 토끼는 어땀나?”

태민 : (다시 그림책을 이리저리 넘기며 토끼 그림을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엄마를 본다.)

(2012. 11. 04.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태민이 어머니는 읽고 있는 그림책과 관련된 질문을 주로 사용하여 태민이가 그림책 읽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민이가 들고 있는 동물 그림책을 보고 엄마는 동물소리를 내며 태민이에게 “어딤나?”하고 질문하면 태민이는 엄마의 질문을 듣고 그림책을 이리저리 넘겨보며 엄마가 흉내낸 동물을 찾으려 하며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였다. 또한 태민이와 자동차 그림책을 볼 때는 태민이에게 그림책에 그려진 자동차의 명칭을 이야기해주고 같은 그림이 그려진 자동차의 버튼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며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하였다.

<관찰 2-20>

엄마 : “태민아, 경찰차네~. 경찰차는 여깁네”

(소리가 나는 버튼을 누른다.) (경찰차 소리가 난다.)

태민 : (경찰차 소리가 나자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책을 넘기며) “이거는? 빨간색 자동차네. 이거는 어딤나?”

(버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누른다.) “여깁네.”

태민 : (엄마가 들고 있는 책을 자신이 들고 앉으며 소방차 그림 버튼을 누른다.)

엄마 : “이용 이용 이용~.” (그림책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한다.)

태민 : “어~어~어~.” (소리를 내며 책을 넘긴다.)

엄마 : “비행기. 비행기는 어딤지?” (버튼을 가리킨다.)

태민 : (비행기 그림 버튼을 누른다.) (비행기 소리가 난다.)

엄마 : (책을 넘기며) “헬리콥터. 헬리콥터 어딤지?”

(버튼을 가리킨다.)

태민 : (헬리콥터 그림 버튼을 누른다.) (비행기 소리가 난다.)

(2012. 12. 29.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처음 자동차 그림책을 읽을 때 태민에게 질문을 하면서 버튼도 함께 눌러 소리가 나는 것을 들려주었다. 태민이는 엄마가 그림책의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엄마가 들고 있던 그림책을 자신이 직접 들고 엄마가 하는 질문을 들은 후 엄마가 알려주는 그림의 버튼을 직접 눌러보면서 그림책 읽기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면담 2-3>

“태민이가 그림책 읽기를 싫어했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자동차도 나오고 책에서 소리도 나서 그런지 다른 그림책을 읽을 때보다 더 재미있게 잘 참여하는 것 같아요. 태민이가 직접 버튼을 누르면서 하면 태민이도 좋아하고, 저도 태민이가 그림책 읽는 것을 잘 따라 해줘서 훨씬 수월하게 읽어요.”

(2012. 12. 29. 관찰 후 어머니 면담)

평소보다 태민이가 그림책 읽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구자가 어머니에게 “평소보다 더 잘 보내요?”라고 했더니 태민이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즐겁게 그림책을 읽은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연구자가 가정을 방문할 때 태민이에게 읽으라고 선물해 주었던 자동차 그림책이 마음에 들었는지 태민이 스스로 그림책의 버튼을 누르기도 하면서 그림책 읽는 활동에 더욱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어머니도 태민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좋아하였다.

5) 설명을 통해 정보제공하기

영아의 어머니들은 영아가 그림책에 주의를 집중 할 때 그림책의 내용을 영아에게 읽어주기 시작하였다. 이때 어머니들은 그림책에 그려진 사물이나 동물 등을 가리키며 대상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림책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그림책 읽기를 진행하였다. 이와같은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전략은 영아들에게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그림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관찰 2-21>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자, 다음. 아빠. 비는 왜 오는 거예요?”

윤성 : (그림책의 구름 까꿍판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

엄마 : (윤성이가 만지는 까꿍판을 올리며)

“통통 아기 구름이 더 놀고 싶다고 잉잉 우는 거야.”

(아기 구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기 구름이 울고 있어.”

윤성 : (엄마가 가리킨 아기 구름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엄마 : “아기 구름이네.”

(2012. 11. 25.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울고 있는 아기 구름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아기 구름이 울고 있어.”하고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엄마가 짚고 있는 구름 그림을 윤성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엄마는 “아기 구름이네.”라고 하며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에 나온 사물들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그림을 하나씩 짚으며 사물의 이름을 여러번 반복하

여 말해주기도 하였다.

<관찰 2-22>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양파가 다가와서 말했어. 나 좀 숨겨 줘”

(그림책의 양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양파야. 양파”

윤성 : (그림책에 그려진 송이 얼굴을 가리키며 엄마를 본다.)

엄마 : “송이” (팝업을 올리며) “송이 입 속에 양파가 들었네.”

(입속의 양파를 가리킨다.)

윤성 : (그림책을 넘긴다.)

엄마 :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당근.”

(옆에 있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토끼.”

(2013. 01. 06. 참여관찰)

윤성이 어머니는 그림책 안에서 여러 번 나오는 ‘양파’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윤성이 양파라는 사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은 사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영아에게 주입시켜 더 많은 사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머니들의 소망이 담겨진 결과로 보여 졌다.

<면담 2-4>

“그림을 읽으면서 윤성이 배우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림책에 나오는 것에 대해 자꾸 이야기 하고 이름을 말해주면서 윤성이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2013. 01. 06. 관찰 후 윤성이 어머니 면담)

연구자는 윤성이 어머니가 그림책에 나온 사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윤성이 어머니에게 “그림책을 읽으면서 사물의 이름을 반복적

으로 이야기 하던데..?”라고 질문하였다. 윤성이 어머니의 면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윤성에게 그림책에 나오는 다양한 사물들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은 윤성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학습의 목적으로 해석된다.

태민이의 어머니도 태민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림책에 나온 그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었다.

<관찰 2-23>

엄마 : (그림책을 들고 태민에게 다가온다.) “태민아, 이거 봐.”

태민 : (엄마가 가져온 그림책을 바라본다.)

엄마 : (그림책을 짚으며) “강아지네. 멍멍. 강아지.”

태민 :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으응?”

엄마 : (그림책을 짚으며) “강아지.”

(그림책을 넘기며) “이거는 고양이. 야옹 야옹 고양이야.”

(2012. 12. 02.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그림책에 나온 강아지나 고양이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태민에게 동물의 이름을 반복하여 알려주었다. 태민이는 엄마가 이야기하는 동물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며 엄마에게 “으응?”이라고 다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관찰 2-24>

태민 : (그림책의 겉표지를 보며) “우와~”

엄마 : “우와~. 불자동차네.”

태민 : (그림책 표지에 있는 불자동차를 한번 만진 후 책장을 넘긴

고, 기차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마를 바라본다.)

“으응?”

엄마 : “기차. 기차가 칙칙폭폭 가고 있네.”

(버튼을 누르며 그림을 설명한다.)

태민 : (옆 페이지에 있는 배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으응?”

엄마 : “배야. 배. 뿌웅~뿌웅~. 바다 위에 배가 있네.”

(뱃고동 소리를 내면서 그림에 대해 설명해 준다.)

(2012. 12. 16. 참여관찰)

태민이는 엄마가 이름을 알려주면 엄마가 가리키는 그림책의 그림을 보며 간단한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이 엄마가 그림책에 그려진 그림의 이름을 말해주자 스스로 그림책을 넘기고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치 엄마에게 질문을 하듯 엄마를 쳐다보기도 했다. 태민의 이러한 행동은 엄마가 사물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물들의 이름에도 호기심을 느끼면서 엄마에게 자신이 궁금한 것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어본 것이다. 이에 엄마는 태민이가 손가락으로 짚은 후 엄마를 보는 것은 사물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으로 받아들여 태민이가 가리키는 그림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또한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이가 손가락으로 짚은 탈것들의 이름을 이야기 해 줌과 동시에 그림책에 그려진 그림의 상황에 대해 묘사해 주어 사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물이 그려진 주변의 환경까지 함께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렇듯 어머니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하기 상호작용 전략은 영아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아래의 사례와 같이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관찰 2-25>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깜깜한 밤을 좋아하는 것은 부엉이. 부엉 부엉.”

“부엉이는 높은 나무를 좋아해.”

윤성 : (엄마가 읽고 있는데 그림책을 넘긴다.)

엄마 : (넘기는 그림책을 잡으며) “봐봐. 부엉이야.”

윤성 : (그림책을 넘기려고 한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우와 가로등이네. 환하게 밝히는 건..”

윤성 : (엄마가 읽고 있는데 그림책을 넘긴다.)

(2012. 12. 01.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윤성은 엄마의 그림책 설명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림책을 넘기려고 했다. 엄마는 다시 그림책을 앞으로 넘기며 윤성에게 ‘부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윤성은 엄마가 그림책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하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림책을 넘기는 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계속해서 그림책을 넘기려고만 하였다.

6)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및 신체 움직임에 이용하여 관심 끌기

영아의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그림책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을 때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거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직접 자신의 신체로 표현함으로써 영아가 사물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림책 읽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영아가 그림책에서 봐야 할 그림을 쳐다보도록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동물 표현하기, 인사하기와 같은 신체표현을 통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그림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관찰 2-26>

엄마 : (그림책을 넘기며) “윤성아, 이거 봐. 토끼야.”

윤성 :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 : (그림책을 위아래로 흔들며) “깡충깡충 토끼네.”
 윤성 : (엄마가 움직이는 그림책을 보고 미소 짓는다.)
 엄마 : (그림책을 보여주며 토끼 그림을 손가락으로 툭툭 친다.)
 “깡충깡충 토끼가 와서 먹지.”
 윤성 : “헤헤헤” (웃으며 엄마에게 다가온다.)
 엄마 :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토끼가 먹네.”

(2012. 10. 27. 참여관찰)

윤성이 어머니는 윤성에게 그림책을 읽어 줄때 엄마가 읽어주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토끼’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윤성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엄마가 그림책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윤성은 엄마가 가리키는 부분을 바라보며 그림책 읽기에 관심을 보였다.

<관찰 2-27>

엄마 : (책을 윤성에게 더 가까이 대고 손가락으로 달팽이를 만지며) “이거 봐. 애벌레야 어디 가니?”
 “달팽이가 꾸물꾸물 애벌레를 따라가요.”
 윤성 : (엄마가 손가락으로 만지는 그림책에 그려진 달팽이를 본다.)
 엄마 : (그림책을 한장 넘기며) “윤성아 이거 봐.”
 “오~. 이게 뭐야~. 애벌레가 구불구불 길을 기어가요.”
 (천으로 되어 있는 구불구불한 길을 손가락으로 만진다.)
 “달팽이가 그 길을 따라가요.”
 윤성 : (엄마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그림책을 본다.)
 엄마 : “달팽이야 같이 가자. 병아리가 총총총 따라가요.”
 윤성 : (책 가까이에 얼굴을 대며) “이게 무야.”
 (손가락으로 달팽이를 가리킨다.)

(2012. 11. 03.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 윤성이는 엄마가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짚거나 그림의 모양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면 엄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윤성이라도 눈동자를 움직이며 그림책을 바라보았다. 이와같은 어머니들의 가리키기 상호작용은 영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림에 집중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물이나 동물들을 인지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나오는 행동인 듯 했다. 또한 어머니들은 책에 나와 있는 동물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특성을 신체로 이용하여 영아들에게 설명해주고자 하였는데 태민이의 어머니는 주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태민이의 관심을 끌며 태민이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관찰 2-28>

엄마 : “태민아, 이리와 봐” (태민이를 안아서 침대위에 앉힌다.)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안녕하세요’ 판을 들며)
 “호랑이야~. 안녕하세요. 여기 봐봐. 엄마 봐. 꾸뽀, 꾸뽀”
 (호랑이 팝업 그림을 열었다 덮었다 하며)
 “태민이도 안녕하세요~ 해야지.”
 태민 : (움직이는 호랑이 그림을 바라본다.)
 엄마 : (손을 배꼽에 놓고 인사를 하며)
 “태민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민 : (엄마를 바라보며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인사를 한다.)
 엄마 : (박수를 치며) “아고 잘하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 한다.)

(2012. 10. 21. 참여관찰)

태민이 어머니는 태민이와 그림책을 읽을 때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태민이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호랑이가 인사하는 그림책을 볼 때에는 엄마가 배꼽에 손을 올리고 태민이에게 직접 인사를 하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호랑이 그림판을 들어 호랑이

허리부분을 숙이며 호랑이가 인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엄마가 여러번 반복적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태민이도 엄마처럼 인사를 하며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였다. 아래 사례를 통해 태민이 어머니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손가락 가리키기와 신체표현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찰 2-29>

엄마 : (소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태민아, 이거 봐. 음모~ 소야.”

(손가락을 머리위에 올려 뿔처럼 만든다.) “음모~.”

(소 울음소리를 내며 태민이 가까이로 다가간다.)

태민 : “크하하하” (엄마를 피해 뒷걸음질 친다.)

엄마 : (그림책을 넘기고 그림책을 보여주며)

“꿀꿀. 돼지네. 태민이 엄마 봐.”

(돼지코를 만들며) “꿀꿀. 꿀꿀. 태민아, 안녕.”

태민 : (침대 위에 쓰러지며 웃는다.) “크하하하하”

엄마 : (돼지코를 하고 태민이에게 다가가며) “꿀꿀. 꿀꿀”

(2012. 12. 16. 참여관찰)

위 사례에서처럼 태민이 어머니는 윤성이 어머니처럼 손가락 가리키기를 사용하여 태민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단순히 손가락 가리키기 뿐만 아니라 그림책에 나오는 소의 모습이나 돼지코를 하는 등 손가락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해 주었다. 태민이도 엄마가 손가락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면 더욱 즐겁고 신나게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면담 2-5>

“태민이가 활동적이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그림책을 읽는 것을 힘들어 해요.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계속 강제로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보다 멀리 있어도 태민이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림책을 읽어주면 태민이가 재미있어 하며 관심을 보여요. 동물 소리를 내면서 흉내 내면 크게 웃으면서 쓰러지고 난리 나요.”

(2012. 12. 16. 관찰 후 태민이 어머니 면담)

태민이 어머니는 음성언어를 사용한 상호작용 전략도 많이 사용했지만 신체표현을 통한 상호작용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위의 면담내용처럼 태민이가 좀 더 신나고 재미있게 그림책 읽기에 참여했으면 하는 어머니의 바람 때문이기도 했다. 관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도 자리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는 것 보다 태민이는 자유롭게 방안을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신체 표현을 통해 흉내를 내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면 태민이는 자지러지듯 웃으며 즐겁고 신나게 그림책 읽기에 참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활동적인 태민이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그림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 보다 직접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즉,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영아가 사용하는 상호작용과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상호작용을 알아봄으로써,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 상호작용 전략

영아는 태어날때부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지만 영아의 상호작용은 성인에 비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아직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영아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전략으로 몸짓이나 표정의 변화와 같은 비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영아가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 전략을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줄 때 엄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엄마가 들고 있는 그림책을 말없이 바라봄으로써 자신이 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영아는 엄마가 그림책에 나오는 특정 상황을 언어로 표현해 주면 엄마의 소리에 반응하여 엄마를 바라보기도 하고, 엄마의 움직임을 물끄러미 바라

봄으로써 엄마와 그림책 읽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는 그림책의 그림을 가리키거나 그림책을 움직이면서 영아의 관심을 끌면 영아는 엄마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며 엄마가 가리킨 그림책의 그림을 보기도 하고, 그림책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시선을 움직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영아는 어머니와 그림책을 읽는 것이 싫거나 좋다는, 듣거나 보고 있다는, 혹은 그림책을 계속 보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엄마나 그림책을 말없이 바라보며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이영자, 이종숙(1996)은 1세 영아의 경우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부모가 읽어주는 것과 일치하는 그림을 바라보기도 하고, 부모가 손가락으로 책의 그림을 지적하며 읽어주거나 말하면 영아는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바라보게 되며 책장을 넘길 때 마다 읽어주는 부분의 그림을 쳐다보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바라보기’ 상호작용 전략은 아직 언어적 표현이 서툰 영아들이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 중 하나로 영아와 어머니 사이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아들은 엄마와 그림책을 볼 때 책장을 넘기는 행동을 통해 책의 다음 내용이 궁금한지, 다 읽었는지, 읽고 싶지 않은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영아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의 내용이나 그림책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영아 스스로 그림책을 들고 한장씩 넘기면서 보는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즐거워하였으며 더욱 관심을 가졌다.

정미라(2011)는 영아는 자신의 신체감각을 이용한 탐색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며, 영아기의 그림책에 대한 이해는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탐색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처음 그림책을 접하는 영아는 이리저리 그림책을 만지고 탐색하면서 그림책과 친숙해 지는 시간을 갖게 되고, 엄마와 그림책을 읽으며 직접 그림책을 넘기면서 책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갖게 된다. 영아

의 이러한 행동은 영아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영아는 엄마와 그림책 읽기를 할 때 엄마의 행동을 모방하여 똑같이, 혹은 그와 유사하게 흉내 내기를 통해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소리를 내거나 그림책에 그려진 동물이나 사물의 흉내를 내면서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영아들은 그림책을 읽을 때 엄마가 내는 소리나 신체의 움직임 등을 보면서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였고, 그 행동을 따라해 봄으로써 그림책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두라(Bandura)는 자신의 경험 없이도 타인이 강화 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나 인지적 사고 체계를 다듬어 가는 학습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인간행동은 모델 제시를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하며 이런 관찰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Bandura, 1977; 최인석, 2001, 재인용). 이러한 관찰을 통한 학습은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영아의 관심을 끌거나 영아에게 좀 더 흥미롭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거나 신체를 활용하여 동물흉내를 내기도하고, 특정 행동을 하거나 표정의 변화를 주며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영아는 엄마가 사용한 표정이나 동작들을 관찰하며 그림책 보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엄마의 행동을 모방하여 따라하면서 어머니와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지속해 나갔다.

영아들의 모방행동은 단순히 즐거움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전략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사용되었다. 월령이 낮은 영아들은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고 직접 따라해 보면서 그림책에 흥미를 갖기도 하고 자신의 호기심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반

면 월령이 높아질수록 엄마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과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림책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내는 소리나 사물의 이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사물의 이름과 사물에서 나는 소리를 인지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넷째, 영아는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하는 행동이나 그림책의 내용으로 인해 미소를 짓거나 소리를 내어 크게 웃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했다.

영아들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엄마가 하는 행동이나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짓거나 큰 소리로 웃기도 했지만 그림책에 나오는 장면이나 그림을 보고 웃기도 하였다. 영아의 웃거나 미소 짓기 상호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미소를 짓거나 작은 소리를 내어 웃기도 했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웃기도 하고, 뒤로 쓰러지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엄마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도 했다.

강인언, 이한우, 정정란(2013)은 1~2세에는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의도적인 미소를 짓고, 놀다가 흥미로운 장난감을 다른 사람 향해 들어 보이는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려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영아가 사용하는 웃거나 미소 짓기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게 하고 친밀감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긍정적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 속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영아가 미소를 짓거나 재미있는 듯 웃게 되면 어머니는 영아에게 더욱 많은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하거나 혹은 영아가 재미있어하는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주면서 그림책 읽기 활동을 좀 더 오래지속하고, 더 많은 그림책을 제공하는 등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다섯째, 영아는 어머니와 그림책 읽기를 할 때 그림책을 밀치거나 그림

책을 덮어버림으로써 그림책 보는 활동에 대한 거부하기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영아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책이 아니거나 그림책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주로 밀치거나 그림책 덮기와 같은 행동이 나타났다. 영아는 엄마가 골라서 읽어주는 그림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가 들고 있던 그림책을 뺏아서 덮어버리거나 자신의 몸 뒤로, 혹은 옆으로 살짝 던져버렸다. 또한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그림책에 있는 촉감 판을 함께 만져보기를 원했을 때 영아는 만지기 싫으면 만지기 싫다는 거절의 의미로 징징거리면서 자신의 양팔을 흔들기도 하였다. 영아는 어머니와 그림책을 읽다가 그림책을 그만 읽고 싶어지면 엄마와 그림책 읽기를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거나 장난감을 만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림책을 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며 엄마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영아의 거부하기 상호작용 전략은 어머니들에게 영아와 그림책 읽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영아가 그림책을 읽다가 자리를 벗어나거나 불려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어머니들은 영아가 그림책을 읽기 싫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그림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고 어머니가 스스로 그림책을 정리하면서 활동이 마무리되기도 하였다.

2)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어머니 상호작용 전략

영아들이 그림책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영아들에게 가장 의미있고 가까이 있는 성인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림책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책을 통해 부모와 영아는 정신적 체험을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교류하게 된다(마쓰이 다다시, 2007). 그림책은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 질 좋은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로서, 어머니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영아와 그림책 읽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 읽기를 시작하려 할 때 어머니들은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시키기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영아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전략으로 어머니들은 영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영아에게 그림책을 보자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가져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예린(2010)은 어머니는 영아로 하여금 책을 보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부르며 주의환기를 한다고 하였다. 이름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시키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로서 영아는 자신의 이름이 곧 자기를 지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이름이 불리는 방향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이름 부르기와 함께 “우와~”, “이게 뭘까?”와 같은 감탄사를 사용하여 영아가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은 그림책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놀람과 관련된 감탄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그림책을 보며 놀람의 감탄사를 사용하면 영아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림책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궁금해 하며 어머니 가까이로 다가와 그림책을 바라보게 되면서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활동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책속의 이야기보다는 그림의 특성에 맞는 음성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영아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영아들의 그림책은 동식물과 관련된 이야기나 영아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과 관련된 그림책이 많이 있다.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이러한 그림책을 읽어줄 때 손짓이나 몸짓,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책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영아가 청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림의 특

성을 살리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읽어주기도 하였다. ‘깡충깡충’과 같은 토끼가 뛰는 모습을 소리로 표현하거나 ‘꼬끼오’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 ‘부웅’, ‘뽕뽕뽕’과 같은 자동차소리 등 그림책 속에 나온 동물이나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면서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이처럼 어머니가 흥내 내는 다양한 음성언어의 사용은 영아들이 그림책 읽기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도하고, 영아의 흥미를 더욱 고조시켜 엄마와 그림책 읽기를 하는 시간이 즐겁고, 신나는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머니들은 영아와 함께 읽는 그림책의 내용이 영아가 사전에 경험한 것과 연관된 내용이면 영아의 경험과 책의 내용을 연결하며 그림책을 읽어주는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했지”, “~봤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과 그림책의 내용을 연결시키며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최혜경(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영아는 ‘이전 경험’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이해하였고, 영아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은 책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책속의 이야기는 이전 경험을 통해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아가 그림책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영아의 이전 경험과의 연결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아에게 이전 경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호작용은 영아가 지금 읽고 있는 그림책의 내용이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경험했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아가 그림책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어머니들은 영아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아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영아를 그림책 읽기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은 그림책을 다 읽은 후나, 혹은 읽고 있던 그림책 말고 다른 그림책에 영아가 관심을 보일 때 “이거 볼거야?”와 같은 질문을 하여 영아가

만지고 있는 그림책을 읽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확인하기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림책 읽기 활동에 영아를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 “어디냐?”, “어디 있지?”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기도 했다. 월령이 낮은 영아에게는 주로 의사를 확인하는 질문을 사용하였고, 월령이 높은 영아에게는 그림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질문을 통해 영아가 그림책 읽기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2004)은 영아들에게 질문하기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부분적인 선택을 허용하며, 영아의 연령이 높아지면 어머니들이 질문을 하여 영아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고스키(Vygotsky)의 근접발달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ZPD)와 관련이 있다. 근접발달지대란, 독립적인 문제해결에 의해 결정된 유아의 실제적 발달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더 유능한 또래들과의 협조아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높은 잠재적 발달수준간의 차이를 말한다(고수미, 2011). 이처럼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영아 의사확인하기 및 참여시키기과 관련된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영아의 잠재된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어머니들은 그림책을 읽을 때 영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림책에 그려진 사물이나 동물 등을 가리키며 대상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림책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는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의 설명을 통한 정보제공하기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사물의 이름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학습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영아의 호기심으로 인해 어머니의 설명하기 상호작용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영아가 자신의 호기심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머니에게 직접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으며 물어보면 어머니는 영아의 행동을 보고 사물의 이름을 설명해주거나 그림에 대해 묘사해주며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Sénéchal, Cornell과 Broda(1995)는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시 언어적 행동으로 설명하기는 명명하고, 묘사하고, 해설하는 것이며, 성인은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Ninio와 Bruner(1978)는 어머니는 그림책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75.6%가 그림과 관련된 명명하기를 사용 하는데, 영아는 명명과 설명을 들으면서 다양한 어휘를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언어능력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그림책에 나타난 사물이나 대상의 이름을 명명해주거나, 그림책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묘사하기와 같은 설명하기는 영아들에게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그림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어머니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하기 상호작용은 영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머니의 설명하기 상호작용과 관계없이 영아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하며 그림책을 보기도 하였다.

여섯째, 그림책 읽기 활동 중 영아가 그림책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을 때 어머니들은 손가락으로 그림책의 그림을 가리키거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며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였다.

어머니들은 영아들이 그림책 읽기 활동에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호작용이 바로 가리키기와 신체표현이었다. 노정임(2012)은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에서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행동은 포인팅이라고 하였다. 포인팅은 영아와 함께 읽고 있는 그림책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그림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림책을 ‘톡톡’치면서 영아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동시에 영아들이 그림책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을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들은 손가락을 활용한 가리키기로 영아와 상호작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신체적 표현으로 영아와 상호작용하기도 했다. 그림책에 나온 동물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몸

으로 코끼리 코를 하거나, 돼지코를 하는 등 동물의 특징들을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을 직접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머니들의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신체움직임을 통한 관심 끌기 상호작용은 영아들에게 단순히 그림책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또다른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그림책 읽기 활동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영아와 어머니는 각각의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그림책을 보고, 그림책을 제공한다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영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영아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한점 및 제언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15개월과 24개월의 남아 2명만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 영아의 월령도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고, 두 영아의 성향도 정 반대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영아를 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연구를 시작할

때의 월령도 비슷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영아의 성별도 고려함과 동시에 더 많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영아의 가정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러 종류의 그림책을 제공하거나 영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제공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영아의 흥미를 고려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을 제공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발달적 상황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는 등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 읽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은 영아가 그림책을 읽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영아를 반복적으로 불러도 영아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머니들은 영아가 그림책을 더 이상 읽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엄마 스스로 그림책을 정리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영아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른 곳에 관심을 보이거나 장난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어머니들은 그냥 단순히 ‘그림책을 읽기 싫구나.’라고만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시 영아의 긍정적인 발달과 상호작용만을 주로 다루어왔다면 영아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나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머니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아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좀 더 다양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미, 구왕현, 백경숙(2005). **아동발달**. 서울 : 창지사.
- 강문희(2004). **아동발달**. 서울 : 교문사.
- 강보라(2012). 그림책을 활용한 창의적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인언, 이한우, 정정란(2013). **최신 아동발달**. 서울 : 학지사.
- 강화자(2008). 2세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수미(2011). Piaget와 Vygotsky의 유아놀이론에 관한 비교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은, 오숙현(2006).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유무에 따른 영아기 언어발달 비교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8(1), 19-40.
- 곽금주, 성현란, 장유경, 심희옥, 이지연, 김수정, 배기조(2005). **한국 영아발달 연구**. 서울 : 학지사.
- 곽승주(2003).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금주(2000). 영아 -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놀이·일상·책 읽어주기 상황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이경열, 정욱호, 홍계옥(2005). **영유아발달**. 서울 : 양서원.
- 김명숙(2008). 영아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 영아의 의사소통 전략 : 까꿍놀이 그림책과 명명하기 그림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순, 이가현(2009). 어린이집에서 24-36개월 영아-교사 간 공동주의와 영

- 아의 어휘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55-165.
- 김미영(2004). 그림책을 통한 어머니-자녀의 책읽기 상호작용을 위한 부모교육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7).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2005).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의사소통.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6(2), 19-51.
- 김세희(2000). **유아 문학 교육**. 서울 : 양서원.
- 김소연(2011). 영아그림책을 활용한 음악활동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문음사.
- 김유진(2007). 영아기 안정 애착을 위한 춤 놀이 프로그램연구 : 신체접촉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순(2003). 만 2, 4세 유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아(2008). 그림책을 활용한 만2세 영아의 몸짓 언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임(1998). 모 · 영아 상호작용에서의 영아의 역할에 관한 문헌 연구.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논문집**, 6(2), 715-730.
- 김현지(2008). 놀이상황에서 1세 영아의 상호작용 동기 및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본 상호작용의 의미 탐색.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1996). 그림책 속의 글을 통한 그림책의 이해. 세계의 그림책 우리의 그림책, 제 1회 KBBY 어린이 책 전시회 자료.
- 김현희, 박상희(1999). **유아문학교육**. 서울 : 학지사.
- 김현희(2009). 보육시설-가정연계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영아의 읽기 흥미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모-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 김연아, 홍희난(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남 규(2009). 교사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영아의 언어발달 비교.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도향(2005). 영아 놀이성과 아버지-영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정임(2012). 영아-어머니의 그림책읽기 행동과 12~18개월 영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쓰이 다다시(2007). **어린이와 그림책**. 서울 : 샘터사.
- 박성연, 도현심(2005). **아동발달**. 서울 : 동문사.
- 박유미(2008). 영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과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윤희(2005). 어머니의 영아와 함께 그림책 읽기 전·후의 그림책 평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상호작용.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6(2), 53-73.
- 서 희(201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수준 및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정아(1995).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성 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미애(2009).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특성 및 영아 기질과 영아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일순(2009). 그림책놀이 활동에서 다문화 가정 엄마와 영아의 경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애순(2004). 영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그림책 관련 표상활동의 구성 및 적용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진희(2000). 그림책 읽기에 나타난 교사의 언어적 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길나(2008).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특성과 영아의 행동특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서울 : 양서원.
- 이경하, 임영심, 한남주(2012). 만1세 영아의 그림책읽기에 나타난 행동특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2), 99-117.
- 이민경(2003). 영아 - 어머니 애착 안정성과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61-181.
- 이민경(2004).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과주 : 양서원.
- 이승연, 김은영, 강제희, 문혜련, 이성희(2011).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관계중심 접근법**. 서울 : 학지사.
- 이양희, 김연수(2001). 미숙아와 정상아의 모-아 상호작용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 4, 275-293.
- 이영(1992). **인간 발달 생태학**.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영경(2000). 영아 가정의 그림책 이용실태와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조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이종숙(1996). 영아의 문해행동 발달과 영아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 **한국유아교육학회**, 16(1), 23-49.
- 이용숙, 김영천, 이혁구,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2011).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 학지사.
- 이윤선(201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및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2004). 어머니의 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7(1), 131-146.

- 이지혜(2010).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한 영아의 언어발달과 교사의 언어태도 변화.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진(2011). 그림책읽기 후속활동이 영아의 언어 및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련(2006). 그림책읽기 상황에서 영아와 교사간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지혜(2007). 영아 발달수준에 대한 부모의 지식 정확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미, 안은정, 이용숙(2009).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과 놀이지도**. 서울 : 창지사.
- 정명숙(2012).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의 차이.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2001). 어린이도서관에서의 영유아 경험에 대한 질적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2012). **영아발달**. 서울 : 학지사.
- 정인영(2008). 영아에 대한 어머니 민감성이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2011). 가정에서 영아의 문해 환경과 언어발달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송(1992). 읽기를 위한 가정환경요인과 책 읽어주기에 나타난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2008). **아동발달**.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성연, 이정희, 천희영, 심미경, 황혜정, 나종혜(2005).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신정.
- 조정숙·김은심(2002). **유아 언어교육**. 서울 : 정민사.
- 조정연(2008). 책읽어주기의 뇌 과학적 이해와 교육의 시사점. 서울교육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 채유진(1998). 가정에서의 어머니 - 영아간 책 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유진, 김명순(1999). 1, 2세 영아-어머니의 가정에서의 책 읽기 상호작용. **한국아동학회**, 20(2). 125-138.
- 최예린(2010).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경험의 이해.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주(2002). 책읽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1세 영아의 상호작용 : 월령과 책의 종류에 따른 비교.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주, 현은자(2002). 책읽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1세 영아의 상호작용 : 월령과 책의 종류에 따른 비교.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3(1), 127-154.
- 최인석(2001). 관찰학습이 유아체육활동의 구르기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은자, 김세희(1996). 전래동화와 이솝우화의 인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연구**, 16(2), 5-25.
- 현은자(2008).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 : 마루별.
- 홍정아(2010). 영아의 성별, 월령 및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과 영아 발달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ulfield, R.(1995). Reciprocity between infants and caregivers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3(1), 3-13.
- DeLoache, J. S., & DeMendoza, O. A. P.(1987). Joint Picturebook interactions of mothers and 1-year-old children.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5(2), 111-123.
- Dickinson, D. K., Tabors, P. O.(2002). Fostering Language and Literacy

- in Classrooms and Homes. *Young Children*, 57(2), 10-19.
- Gordon W.(1986). *The Meaning Makers: Children Learning Language and Using Language to Learn*. Heinemann.
- Jalongo, M. R.(1988). *Young children and picture books : Literature from infancy to six*. Washington. DC; NAEYC.
- Kochanska, G.(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1), 94-112.
- Maccoby, E. E.(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ical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06-1017.
- Neuman, S. B.(1996). Children engaging in storybook reading: The influence of access to print resources, opportunity, and parental interaction.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4), 495-514.
- Ninio, A., Bruner, J.(1978). The achievement and antecedents of labelling. *Journal of Child Language*, 5, 1-15.
- Sénéchal, M., Cornell, E., H., & Broda, L., S.(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10, 317-337.
-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 Caufield, M.(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52-559.

북 스타트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 : <http://www.bookstart.org>

북 스타트 영국 공식 웹사이트 : <http://www.bookstart.co.uk>

ABSTRACT

An Ethnography Study of Infant and Mothers' Interaction Strategy in Reading Picture Book

Go, Woo-Lee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carefully explore the course of interaction of infants and mothers by deeply looking into the course of reading picture books by infants aged one year and mothers.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interaction strategies infants and mothers use in looking at and reading picture books, and thereby understand the course of interaction between mothers and infants, and provide a suggestion of education made with a medium of picture book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work set up the following study issues:

First, how are infants' interaction strategies in reading picture books?

Secondly, how are mothers' interaction strategies in reading picture books?

The study subjects of this work were two male infants aged 15 and

24 months and their mothers living in Gyeonggido. The research on the study subjects had been conducted from mid-October 2012 to mid-January 2013. During the period, participation observation was made 2 hours once a week (a total of 24 times).

For data collection, interaction between infants and mothers in reading picture books in everyday life was observed and recorded, and interviews with mothers were photographed and recorded. For data analysis, the transcriptions made with photographed and recorded contents and site-observation records were looked into to understand the transcriptions better. To resolve doubts and check the findings and analysis result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this researcher interviewed the mothers or reviewed literatures repeatedly.

The study results of this work according to study issu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nfants' interaction strategies in reading picture books with their mothers were expression of their interest by looking at picture books without a word, expression of their curiosities about the next story by flipping through a page, copying of their mother's behaviors, keeping smiles and laughing, and expression of their refusal by pushing away and closing picture books. Infants expressed their interest in the activity of reading picture books by looking at them without a word, or expressed their thoughts of their curiosity about the next story and of whether they finished reading picture books by flipping through a page. Also, they copied their mothers' sounds and

behaviors made in reading picture books, enhanced the activity of reading picture books by smiling and laughing, or expressed their refusal to read picture books by pushing away or closing picture books.

Secondly, it was found that mothers' interaction strategies in reading picture books were calling infants' attention through linguistic stimulation, using vocal language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pictures, connecting infants' experiences with the books' contents, checking infants' opinions and letting them participate into reading activity, offering information by explanation, and drawing an infant's attraction by pointing with fingers and body movement. Mothers tried to let their infants to pay attention to picture books by giving them linguistic stimulation such as calling their name or using exclamations related to surprises. In addition, mothers used vocal language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pictures and thus helped infants to get hearing stimulation. In other words, they mimicked some sounds of animals and objects drawn in picture books in order to keep drawing infants' attention. Mothers read picture books by associating the books' contents with infants' previous experiences, or asked infants questions about whether they want to keep reading or about something related to the books' content in order to let them participate in reading activity. In reading picture books, mothers pointed at objects and animals drawn in picture books and said their names or explained them to give infants new information. When infants paid no attention to picture books, mothers pointed at picture books with fingers, or expressed the movement of objects and animal figures by using the body in order to

draw infants' attention to reading activity.